

금수강산

12

주체110(2021)
루계 제388호 월간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0(2021)년 12월호

표지: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주체105(2016)년 9월 량강도 삼지연시에 정중히 모셔졌다.

한평생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각계층 인민들이 이곳을 끊임없이 찾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제388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편집: 리경훈, 최은혁

ㄱ-2180235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주체110(2021)년 11월 18일

당의 웅대한 강령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는 전체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용용한 전진을 립증하는 귀중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속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가 성대히 열리였습니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의 신념은 더 억세여지고 우리 국가의 힘은 더욱 강대해졌으며 우리앞에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도상에서 우리가 도달한 현 단계와 다음단계의 투쟁목표, 혁명력량의 준비상태와 조성된 대내외형세를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확고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길은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정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당중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3대혁명로선의 전략적지위와 변혁적의의를 재인식, 재확인시키고 온 나라에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을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또 하나의 리정표를 세우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당의 총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간개조의 선구자, 집단적혁신의 주인공이 되여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 크게 공헌한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3대혁명기수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당이 세폭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하는 때에 시대의 앞장에서 새로운 기준과 표본을 창조하고 투쟁의 산모범을 보이는 3대혁명선구자대오가 늘어나고있는것은 우리 위업의 승리를 확신케 하는 커다란 힘으로 됩니다.

3대혁명로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강령이며 우리 당의 총로선입니다.

우리 국가건설의 전 력사는 곧 3대혁명의 력사이며 우리는 3대혁명로선을 실현하는 길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도 공산주의사회도 맞이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력사에 태여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라는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불변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정신, 원칙과 내용, 그 실현방도가 집약화되여있는 명문구입니다.

3대혁명로선에 관통되여있는 정신은 자기 힘으로 자기나라 혁명을 완수하는 철저한 자주정신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력사적로정에서 매 혁명단계의 임무와 주객관적조건은 부단히 변하지만 주체를 핵으로 하는 혁명전략은 달라질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헤치면서 예측할수 없는 도전과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언제나 굳게 믿고 튼튼히 의거해야 할 주체적힘을 키우는 바로 여기에 3대혁명의 거대한 의의와 불멸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근본적으로 일신시킨 주체조선의 위대한 변혁은 철두철미 3대혁명으로 이룩한것이며 세인을 경탄시킨 우리 국가의 모든 기적은 다름아닌 3대혁명로선의 승리입니다.

건국의 첫 기슭에서부터 우리가 3대혁명의 기치를 들지 못하였다면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영웅적인민의 탄생도, 빈터우에서 강국으로 솟구친 공화국의 경이적인 발전도 생각할수 없었을것이며 세계적인 대정치동란과 전대미문의 도전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재를 상상조차 할수 없었을것입니다.

3대혁명로선과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성에도 맞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도 맞으며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그 진리성과 우월성, 불패의 위력이 뚜렷이 확증된 투쟁강령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3대혁명로선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완벽하게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하여 가까운 앞날에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합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는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장구한 투쟁의 결과로써 도래한 력사의 분수령인 동시에 보다 높은 단계의 3대혁명으로써 이룩될 발전의 새시대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시정 첫시기부터 내세운 자주, 자립, 자위의 건국로선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의 동시적발전을 지향하고있으며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3대혁명의 기발을 추켜들고 오랜 기간 간고하고도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이 력사적투쟁과정에 공화국의 정치군사적력량은 비상히 장성하였으며 우리는 마침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를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억척으로 수호하고 강력히 추동할수 있는 결정적요인과 기본조건이 마련된 지금에 와서 발전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은 먼 래일의 리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로 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에로의 위대한 전환은 곧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과정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기품과 인격을 높이며 국가경제를 전반적발전에로 이행시키고 농업생산구조를 바꾸며 우리 식의 새 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중대과제들은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사람들의 변화와 발전, 개명을 전제로 하며 전당, 전국, 전민이 참가하는 3대혁명총진군을 요구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은 본질상 사상, 기술, 문화의 3대령역에서의 새로운 혁명입니다.

전체 인민을 당의 사상으로 단합시키고 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과학기술적토대를 구축하며 전민을 인재화하고 온갖 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는 3대혁명의 목표를 점령하여야 우리 국가의 선진성, 현대성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세폭의 붉은기를 더욱 세차게 휘날려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우리 당의 리념, 우리 혁명의 요구를 현실화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자는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입니다.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하자!》,

우리는 이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이 3대혁명화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이루려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며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리상사회입니다.

온 사회를 3대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다그치는데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보다 더 힘있는 추진력은 없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였습니다.

당에서는 이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의 성격과 사명, 이 운동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중요한것은 발전하는 시대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당중앙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의 현 실태에 대한 료해분석에 기초하여 이 운동들에 활력을 부어주기 위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다그쳐야 할 시대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지금처럼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직장과 작업반만을 단위로 벌릴것이 아니라 시, 군, 련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사회적운동,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서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성격으로 보나 전체 인민의 일치단결로 승리해나가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연적요구와 모든 분야, 모든 지역을 다같이 고르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현 단계의 혁명임무로 보나 이 운동을 시, 군, 련합기업소들에로 확대하는것이 옳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1970년대에 벌써 앞으로 이 운동이 심화됨에 따라 시, 군, 련합기업소단위로 조직진행해나갈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시, 군은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 마땅히 3대혁명의 거점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시, 군을 단위로 하여 벌어지게 되는것은 합법칙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시, 군을 단위로 벌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책임적인 태도와 전체 인민의 참가를 전제로 하며 온 나라를 3대혁명으로 들끓게 하는 더없이 위력한 방식입니다.

우리 당은 당정책관철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직집행하는 기본단위로서의 시, 군을 대단히 중시하고있으며 시, 군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 국가의 부흥을 다그치는 시, 군강화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습니다.

당정책관철과 3대혁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정책은 그 포괄범위와 내용이 모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령역에 속해있으며 그가운데서 시, 군이 직접 책임지고 집행해야 할 정책적과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농촌을 때벗이하며 학교와 병원들을 개건하는 문제는 물론 살림집건설, 원림록화, 치산치수 등 당에서 내세우는 중요정책들은 시, 군과 같은 지역을 단위로 집행되는 3대혁명과업이며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 문화혁명을 다같이 밀고나갈데 대한 3대혁명수행의 원칙적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할 때 그 성과를 담보할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온 나라에 소문을 내며 모든 면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시,군들을 보면 례외없이 당책임일군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진맛을 알고 당정책관철과정을 3대혁명과정으로 전환시켜나가는 단위들입니다.

전국의 200여개 시, 군들이 3대혁명의 기치

높이 용을 쓰며 일어나게 되면 지방이 변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농촌들이 현대적인 기술과 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될것입니다.

지방의 얼굴이 달라지고 농촌의 어제와 오늘이 뚜렷이 대비되는것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가 시작되고 바로 여기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진면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 군당위원회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시, 군강화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여기에 지향시키며 시, 군당위원회들의 사업에 대한 총화평가도 응당 이 운동정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전체 인민이 3대혁명을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치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합니다.

당중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시, 군에로 확대발전시킬것을 구상하면서 크게 믿은것은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한 대중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입니다.

광범한 대중이 자기자신을 더 참되고 문명한 인간으로 개조하며 자기가 살고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고장을 훌륭히 변모시키는것이 다름아닌 3대혁명이라는것을 깨닫는다면 무서운 힘으로 들고일어날것입니다.

시, 군안의 일군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농장원에 이르기까지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당중앙의 의도를 잘 알려주는것과 함께 그들을 정신문화적으로 계몽시키는 사업을 항상 선행시켜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망계획과 설계도를 작성하여도 그렇고 예술공연과 체육문화행사를 하나 조직하여도 정치문화성과 품위를 높여 그 과정이 곧 사람들의 눈을 틔워주고 발전된 문명을 배워주는 계기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의식상태가 많이 개변되였기때문에 새것을 보여주는것만큼, 들려주는것만큼 정치의식과 미학관, 일본새와 생활방식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것입니다.

시, 군을 단위로 벌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시, 군강화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의 련속이며 3대혁명이 고조되고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시, 군들에는 이미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들도 있고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통하여 쌓은 성과와 경험도 적지 않은것만큼 잡도리를 잘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됩니다.

시, 군당위원회들은 지역내 모든 행정경제기관, 모든 단위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시키고 당적지도를 심화시켜 3대혁명붉은기, 2중,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대렬을 부단히 늘여나가야 합니다.

시, 군당책임비서를 비롯한 모든 일군들에게 3대혁명이라는 말이 늘 붙어다니고 시, 군전체가 3대혁명열로 부글부글 끓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의식과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시, 군들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질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시, 군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된바람을 일으키자면 도당위원회들이 키잡이를 잘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활기있게 벌어지도록 작전을 짜고들고 장악지도사업을 심화시켜 공산주의리상촌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는 시, 군들이 다발적으로 나오게 하여야 합니다.

각도들에 3대혁명전시관을 꾸려야 하겠습니다.

자기 도안의 시, 군들과 련합기업소들에서 3대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룩된 가치있는 성과자료들을 전시해놓고 참관조직을 잘하면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계발시키고 그들의 분발심과 경쟁열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좋고 짧은 시간에 우수한 경험과 방법을 터득하며 앞선 기술을 공유하는데서도 대단히 실리적일것입니다.

도당책임비서들이 직접 틀어쥐고 3대혁명전시관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촉진시키고 3대혁명수행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학습장소, 기술교류장소, 정보교류장소로 꾸려야 하겠습니다.

온 나라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려면 이 운동에 대한 일군들의 견해와 관점부터 혁신하여야 합니다.

지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일부 모범적인 단위들과 선구자들에 한정되여있습니다.

일군들부터가 경제적어려움과 같은 눈앞의 난관에 위축되여 이 운동에 대한 신심을 가지지 못하다보니 적지 않은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전진이 없고 어떤 단위들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지 20년이 되여오도록 한급 높은 칭호를 쟁취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조건이 어려워서 이 운동에 뛰여들지 못하겠다고 할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이 운동에 궐기하고 된바람을 일구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으로 키우고 락오자도 선진분자로 만들며 작은 손으로도 전설의 천리마를 불러오는것이 우리의 독특한 대중운동사상의 위력이고 전통입니다.

3대혁명의 용광로속에서 패배주의와 같은 온갖 잡사상들이 불타버리고 만사가 풀린다는 관점, 바로 여기서부터 혁명이 일어납니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과 그렇지 못한 단위들과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이 운동의 특성과 위력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상차이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못해낼것이 없다는 주체사상의 원리와 그 구현인 공화국의 영웅서사시를 배우며 성장한 혁명가들입니다.

일군들은 사람들의 혁명화, 공산주의화를 다그치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의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특성을 잘 알고 그 대하의 흐름에 주저없이 뛰여들어 단위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력사가 근 반세기를 가까이하고있지만 아직도 많은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지 못하고있고 이미 수여받은 단위들가운데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단위들이 적지 않은것을 놓고보아도 이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허점들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판정을 받기 위한 운동, 기발을 수여받으면 끝나는 운동처럼 되고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는 응당 모든 단위들을 이 운동에 궐기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운동 전 과정에 대한 정상적인 장악과 지도, 공정한 판정 그리고 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들이 계속 높은 목표를 세우고 3대혁명수행에서 앞장서나가도록 하기 위한 부단한 지도방조와 재판정, 실속있는 총화로 일관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

하는데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사업상특수성과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적지 않은 단위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것으로 되여있습니다.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건설자라면 누구나 받들고 관철해나가야 하는것만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참가하지 않는 단위나 근로자란 있을수 없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그 어느 단위나, 그 누구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설수 있게 지도서와 관정규정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에 세운 기준들을 다시 검토해보고 갱신할것은 갱신하고 보충할것은 보충하면서 속살있는 지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열기를 고조시키는데서 옳은 상벌제도를 실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과 3대혁명기수들에 대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잘해주어 보다 많은 단위들과 광범한 대중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한단위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자기 단위를 3대혁명붉은기, 2중,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로 만드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들과 당정책관철의 혁혁한 성과로 3대혁명기수집단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단위들에는 높은 급의 수훈과 표창도 내신하여야 합니다.

특히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시, 군들에는 훈장과 표창을 수여할뿐 아니라 국가적인 우대조치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슨 일에서나 총화평가가 공정하고 상벌관계가 명백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뒤자리를 차지하는 시, 군당책임비서들, 3대혁명붉은기단위대렬에서 제명되거나 칭호를 박탈당한 단위의 당책임일군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시, 군, 련합기업소범위로 확대하는데 맞게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원만히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직능을 바로 작성하고 필요한 기구와 직제도 보충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이 운동을 직접 맡아 지도하는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지도하는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방침에 정통할뿐 아니라 각 분야의 당정책도 알고있어야 하며 행정경제사업실무와 과학기술에도 밝고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맡은 지역에 깃든 당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잘 알고 구체적실정과 특성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우기 위한 방법론을 부단히 연구적용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위원회들에서도 대중운동을 담당한 일군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리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고 적어도 5년이상은 고착시키는 제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선전선동부에서만 하는것으로 인식하여서는 안됩니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각급 당위원회 모든 부서들이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선전선동부와의 배합작전, 협동작전으로 이 운동을 적극 떠밀어나가야 합니다.

잡지 《3대혁명붉은기》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선도하고 추동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될수 있게 잘 편집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잡지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성과와 경험만이 아니라 결함과 교훈적인 문제들도 취급하고 결의목표작성과 총화방법같은 실무적인 문제들도 다룰수 있게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호상 밀접한 련관속에 있습니다.

3대혁명의 불도가니속에서 훌륭한 인간전형들이 배출되며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이야말로 3대혁명선구자들중의 선구자들입니다.

당에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을 높이 내세우는것은 한생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그 어떤 공명과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가는 그들의 높은 충성심과 아름다운 애국지성이 참으로 고맙고 귀중하기때문입니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적극 벌려 전세대들이 발휘한 충성과 애국의 모범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계속 재현되게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대회같은것을 진행하고 그것을 정례화하면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숭고한 높이에 올라선 선구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당이 바라고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삶에 대한 생동한 교본을 가지게 될것이며 새세대들을 교양하는데도 아주 좋을것입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 우리 식의 문명을 개척해나가는 변혁의 시대에 3대혁명소조는 응당 척후대가 되고 전위로 활약하여야 합니다.

당의 사상과 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현대지식과 문화를 체현한 새세대 지식인집단, 리상과 포부가 크며 새것에 대한 지향과 혁명열, 창조열이 높은 쇠소리나는 청년전위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3대혁명소조라는 고귀한 부름은 지금과 같은 새로운 혁명의 시대에 투쟁과 전진의 기발처럼 나붓겨야 하며 3대혁명전위라는 영예로운 칭호는 응당 격변하는 시대의 상징으로 더욱 자랑스럽게 빛나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3대혁명소조의 임무는 기술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파견단위의 3대혁명화를 추진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을 받드는데서 과학과 공업이 노는 중대한 역할과 더불어 기술혁명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습니다.

경제기술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현대문명에로 나아갈수 없고 사회주의사상진지도 공고히 다질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에서는 3대혁명소조를 다름아닌 우리 혁명의 중요진지들에 기술혁명의 별동대로 파견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명의 봉화를 들고 기술개조, 기술창조, 기술도약을 위한 투쟁에 청춘의 열정을 쏟아부어 해당 단위의 발전과 비약의 지름길을 개척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실에 몸을 푹 잠그고 현장기술자들과 근로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파견단위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전국각지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똑똑한 과학기술성과를 한건씩만 내놓고 도입하여도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이 적지 않게 풀리게 되며 그것을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기술혁명의 불길

이 활활 타오르게 할수 있습니다.

생산현장에서 탐구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탐구하여 새 기술창조의 선두에서 나가는것이 3대혁명소조원의 활동방식으로 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패기와 정열에 넘치고 진취성이 강한 청춘시절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먼 후날에도 값높이 추억할 창조의 자욱을 뚜렷이 남겨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는 파견단위의 3대혁명화를 강력히 추동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적, 국가적안목과 혁신적인 고찰력으로 현실을 투시하고 파견단위의 3대혁명수행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적극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 당조직의 지도밑에 군중정치사업도 하고 언제나 대중속에서, 대중의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며 새지식과 새기술보급의 주인이 되여 기술혁신의 분위기를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수도의 발전된 문화, 도시의 앞선 문화가 지방으로, 산간벽촌으로 흘러들게 하는데서도 강한 전파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혁명적이고 생기발랄한 분위기가 차넘치고 창조와 투쟁의 열풍이 일어번져야 하며 3대혁명소조원이라면 누구나 온 집단이 바라보고 본받는 3대혁명의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을 떠메고 나갈수 있는 전망성있는 후비간부들을 키우는데서 3대혁명소조사업을 대단히 중시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은 간부혁명을 동반하며 젊고 쟁쟁한 후비간부들을 체계적으로, 대대적으로 키워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소조기간을 당과 국가의 은덕에 보답하는 첫걸음인 동시에 자신들을 앞날의 민족간부로 준비하는 시절로 귀중히 여기고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높은 실무적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의 뜻에 리상을 따라세우고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매일, 매 순간 사색과 실천을 이어나가는 참된 혁명가, 진취적이고 혁신적이며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의한 기질의 소유자, 먼 후날에도 자기 사업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총화받을수 있는 성실하고 량심적인 인간, 고상한 문화와 도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는 멋있는 청년으로 되는것이 3대혁명소조원들의 열렬한 지향으로 되여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3대혁명소조에 대한 지도는 한마디로 알속은 없고 형태적인 틀거리만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하부까지 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있지 않다보니 통일적인 지휘와 심도있고 구체적인 지도가 보장되지 못하고 3대혁명소조운동이 활기를 잃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소조사업실태를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적실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활성화는 응당 3대혁명소조의 질적, 량적강화로부터 시작되여야 합니다.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 대학졸업생들을 엄선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전반을 추켜세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파견력량을 보다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를 생산단위들에만 파견하던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단위로도 파견하여 당의 시, 군강화로선관철에서 한몫 단단히 맡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경제부문을 추켜세우는 사업과 지역발전을 추동하는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도 3대혁명소조에 대한 지도를 보다 실속있게 할수 있으며 소조의 역할도 증대시킬수 있습니다.

전국적범위에서 제기되는 기술력량의 수요와 파견가능성을 잘 따져보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생산단위들과 각 지역들에 파견할 3대혁명소조의 규모를 적절하게 설정하며 소조파견사업을 책략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소조에 대한 지도를 중요한 당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부단히 심화시키며 3대혁명소조를 내세워 자기 지역, 자기 단위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도 풀고 3대혁명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우리 당의 파견원이라는 긍지를 안고 최대의 마력을 내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며 실적이 높은 소조원들을 내세워주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창도 잘해주어 그들의 정신력과 창조적열의를 앙양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소조기간에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대학졸업생들을 간부로 적극 제발등용하며 그들이 생산현장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지식인답게 당과 인민을 위하여 변함없이 충실히 복무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부문, 해당 단위들에서는 3대혁명소조가 기술혁명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사업이 국가적리익, 시대적추세와 현실적요구에 맞게 옳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와 심의를 책임적으로 하며 전시회, 참관을 비롯하여 3대혁명소조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창발성을 계발시키는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선구자들은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핵심이며 보배들입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동지들과 같은 훌륭한 충신, 애국자들이 많기에 우리 당과 국가의 기반은 굳건하며 온 나라를 3대혁명화하는 투쟁은 약동과 전진의 세찬 격류를 일으킬것입니다.

모든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난관은 의연히 겹쌓이고있지만 우리는 모든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의 발전침로를 따라 굴함없이 억세게 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나는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3대혁명의 거세찬 불길로 물리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반드시 안아오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불굴의 의지를 안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영광을 위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 * *

인민을 위한 한평생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하신 단위 1만 4 290여개
현지지도하신 총 거리 연 167만 4 610여리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12월



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5월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어린이들이 창작한 서예와 그림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5(2006)년 1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렬해만 진다.

그 그리움은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온넋과 심혈을 다 바쳐오신 그이에 대한 가장 숭고한 감정이다.

위대한 어버이와 영결하던 그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인민들은 그이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애국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그이께서는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생애의 전기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북방의 발전소언제건설장으로부터 분계연선마을에 이르기까지 그이께서는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천리이건 만리이건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였다.

주체100(2011)년 12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그이께서는 정신육체적고통을 이겨내시며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도의 책임일군이 이해도 다 지나가는데 이제는 좀 휴식하셔야 한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늘 이렇게 일하는데 습관이 돼서 일없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많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흘러간 그이의 현지지도는 조국의 전진속도를 더해주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래일을 앞당겨왔다.

대규모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공사, 간석지건설이 추진되고 화학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의 주체화, 현대화가 추진되였으며 전국도처에 경공업공장들과 축산기지, 과일생산기지, 양어기지들이 일떠섰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무한한 헌신으로 수놓아진 한생이였다.

하다면 그이의 애민헌신의 장정은 무엇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신의 제일가는 본분으로, 자신께서 지니신 최대의 력사적사명으로 간주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그이께서 내놓으신 이 구호에는 인민을 위한 복무를 사명으로 삼으신 그이의 인생관이 집약

되여있다.

마음속에 항상 인민을 안고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그이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도 언제나 인민이 놓여있었다.

주체95(2006)년 3월 삼수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침수지역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살림집건설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상불편을 헤아리시여 그들의 살림집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늘 《나는 인민들이 좋아하면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라고 교시하군 하시였다.

어느해인가 개건된 어느 한 닭공장에서 생산한 닭고기를 공급받은 인민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으며 장강군 장평협동농장에 새로 지은 살림집들에 가시여서는 기뻐하는 농장원들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보내신 그이이시였다.

주체92(2003)년 2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며 기뻐하는 여기에 우리가 시련을 헤치며 혁명을 하는 보람이 있는것이라고, 나는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군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정녕 인민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는 뜨겁고 끝이 없었다.

인민의 행복을 최대의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시며 그이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하신 단위는 1만 4 290여개에 달한다.

오늘 조국땅에 마련된 모든 귀중한 재부들과 창조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남기신 고귀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물려주신 애국유산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무궁번영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국땅에 마련된 귀중한 재부들과 창조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남기신 고귀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그리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주체100(2011)년의 12월로부터 10년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지만 그 나날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경모의 정이 더욱 뜨거워진 그리움의 10년이였다.

그 그리움은 조국땅 북변의 삼지연시로부터 조선서해의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 전체 인민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일어번지였다.

돌이켜보면 자신의 한생을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만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이이시였다.

10년전 12월 15일 그이를 만나뵈온 김영옥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날 바람세찬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점을 앞둔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상업봉사기지를 마련해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상업중심의 긴 로정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날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운 날인데도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던 그이의 미소속에 그처럼 큰 정신육체적과로가 어려있은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언제나 마음속엔 인민뿐이신 그이께서는 공장이나 농장에 가시면 나의 인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군 한다고, 인민들이 잘살게 되였다는 말을 들으면 쌓인 피로도 한시에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고, 나는 우리 인민을 잘살수 있게 할수만 있다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해에도 수많은 단위들을 찾으시였다.

중앙동물원, 룡악산샘물공장,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희천발전소건설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개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근로자들 주체108(2019)년 촬영

청년공원유희장…

그이께서 다녀가신 곳마다에서 인민들은 한없는 그리움으로 날과 달을 이어왔다.

해마다 국가적명절과 기념일이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고 헌신의 장정을 담은 기록영화들을 보며 민족사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기였다.

노래를 불러도 그이에 대한 노래로 마음을 적시고 일을 해도 그이의 유훈을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는 조국인민들이다.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에 새기고 주체철생산을 늘여온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려 그이께서 바치신 로고를 돌이켜보며 협동벌마다에 량심을 바쳐온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 CNC화의 열풍을 안아오신 그이의 업적을 빛내일 일념 안고 첨단돌파의 낮과 밤을 이어온 과학자, 기술자들…

그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일터에서 만나뵈웠던 그날의 영광을 간직하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직포공들 그리고 수천척지하막장에까지 찾아오시여 검덕의 광부들을 고무해주시던 그이의 믿음을 안고 해마다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해온 고경찬영웅소대 광부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 인민이 그이의 애국념원, 사회주의강국념원을 꽃피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그 열의와 더불어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나라의 방위력은 더욱 굳건해지였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길을 따라 힘찬 진군길을 다그치고 있다.

본사기자 한경연
사진 조선중앙통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 주체108(2019)년 촬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7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흰눈에 담는 생각

12월이다.

이해 겨울에도 강산에 흰눈이 내려쌓일 생각을 하니 이 마음은 자못 뜨거워진다.

언제부터였던가.

이 흰눈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그리움의 상징으로 자리잡은것은.

10년전 12월 함박눈이 쏟아지는 속에 조국인민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영결하던 날이 돌이켜진다.

그날 인민들은 한평생 눈비바람 맞으시며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결의 날에마저 찬눈길로 가시는것이 너무도 애석하여 그이께서 가실 길우에 자기들의 솜옷이며 목수건들을 정히 펴드리였다.

정녕 그이의 한생과 너무도 깊은 인연을 맺은 흰눈이다.

흰눈덮인 백두산밀영고향집에서 탄생하신 그이의 유년시절도 차디찬 눈보라가 울부짖던 백두밀림에서 흘렀다.

1950년대 준엄한 전화의 겨울날들에는 찬눈을 맞으시며 최고사령부를 우러러 애국의 마음을 더욱 굳히신 그이이시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조국의 운명을 두고 《붕괴설》을 떠들던 1990년대 겨울들에는 선군의 기치높이 력사의 모진 광풍을 헤쳐오신 그이의 헌신의 날과 달들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그렇게 헤쳐오신 그이의 눈길은 얼마나 힘겨웠던가.

어느해 겨울날 병사들을 찾아 전선길에 오르시였던 그이의 모습이 다시금 되새겨진다.

당시 그이께서 부대에 도착하신다는 소식에 접한 군인들은 일제히 환성을 올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병사들의 눈앞에 가까와오는 그이의 승용차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있어 움직이는 눈무지처럼 안겨왔다.

그들은 억이 막혀 굳어지고 말았다.

온 나라 병사들을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위험천만한 전연초소를 찾아 눈덮인 험한 령길을 굽이굽이 넘어오신 위대한 장군님.

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존안에는 환한 미소가 어리였지만 병사들의 가슴은 저미는듯 아팠고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듬어보면 그이께 있어서 이런 사연들이 천이던가 만이던가.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들과 병사들을 찾아 그이께서 무수히 넘고넘으신 자강땅의 험준한 산발들이며 백쉰두굽이의 오성산 칼벼랑길, 잊지 못할 다박솔언덕…

그 모든 길들에 소리없이 내리였던 흰눈이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조국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준다.

대지를 품어안는 흰눈처럼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다 바치실 의지를 안고 걸으신 그 길우에 쉬임없이 쏟아져내린 눈송이,

그 눈이 너무도 야속하여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눈비를 우리가 다 맞으려니 장군님께서만은 부디 찬눈길을 걷지 마시라고 노래를 부르며 그리도 절절히 그이의 안녕을 소원하였다.

하건만 그이께서는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헌신의 길을 걸으시였고 생애의 마지막날에조차 찬눈을 맞으시며 현지지도의 렬차에 오르시였다.

바로 그래서 흰눈이 우리에게 그리도 뜨겁게 느껴지는것이고 누구나 저 흰눈에 그토록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는것이리라.

자연의 눈은 내리면 녹아서 땅에 스며든다.

그러나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 내리는 흰눈은 영원히 녹지 않을 그리움의 눈이다.

사시장철 영원히 간직할 12월의 흰눈이다.

본사기자 홍정혁

수기

화장품 하나에도

해마다 12월이 오면 우리 공장 로동계급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옵니다.

조국땅 그 어디나 그러하듯이 우리 공장에도 그이의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새겨져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있던 주체88(1999)년 6월 평안북도의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장도 찾아주시였습니다.

당시 공장에서는 《너와나》라는 상표를 단 화장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있었습니다.

공장의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생산된 화장품들을 다 우리 인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 인민들에게 차례질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은 마땅히 제일 경치좋고 문화위생적으로 완전무결한 장소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남신의주지구의 산기슭 아담한 곳에 공장터전도 새로 잡아주시였습니다.

그후 현대적미감에 맞게 공장건설을 질적으로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새로 일떠선 공장에서 첫 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화장품의 상표를 《봄향기》로 달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주체90(2001)년 1월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새로 건설한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습니다.

인민들이 쓸 비누생산에서는 량적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해서와 불소치약을 만들어 인민들이 예방치료용으로 리용하게 할데 대한 문제, 세수비누와 치약을 떨구지 말고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할데 대한 문제, 녀성들의 기호에 맞게 화장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다심한 어버이의 정을 부어주시였습니다.

조화장품포장작업장에 들리시여 결혼식매대들에서 《봄향기》화장품을 팔아주니 사람들이 정말 기뻐들 한다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인민들이 좋아하면 됐다고,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자고 거듭거듭 교시하시였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두고 그리도 마음을 쓰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어버이의 정과 사랑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전반공정에서 무인화, 무균화를 실현하며 제품의 다양화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습니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우리는 그후 공장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일신하였으며 로화방지화장품, 보습화장품, 미백화장품, 남자용화장품 등 40여종에 70여가지의 새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봄향기》화장품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몇해전에는 공장이 내놓은 특허기술인 《불로초배양액과 그를 리용한 로화방지영양액》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발명가메달과 증서가 수여되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것은 기업발전의 일반적요구이며 거기에는 더 높은 리윤추구라는 공통의 목적이 담겨져있습니다.

진정 우리 공장제품의 종류가 날로 다양해지고 그 질이 더욱 높아지는데는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이 담겨져있기때문입니다. 우리 공장 로동계급들은 언제나 이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신의주화장품공장 지배인
김혜영

쇠물처럼 끓는 황철의 로동계급



용광로에서 용암처럼 끓어 번지며 연방 흘러나오는 주체철을 보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해공들의 구리빛얼굴마다에 환희가 넘쳐있다.

우리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이 쏟아지고있는 장쾌한 광경을 바라볼수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그이께서 기업소에 남기신 유훈을 뜨겁게 돌이켜보는 황철의 로동계급이다.

용광로직장 직장장 김경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주체철생산토대에 의거하여 철강재생산과 중량레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우리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운 이 산소열법용광로는 북부와 서부의 철광석을 가림없이 그것도 소결광생산과 같은 처리공정이 없이 다 녹여낼수 있다. 그리고 련속장입, 련속출선하게 되여있고 로보수기일이 짧으며 가열된 페수를 리용하여 수천kW의 전기까지 생산하고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였고 뜻이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여러 차례나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량레루생산과 산소열법에 의한 선철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황철의 로동계급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해나갔다.

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정은 하나부터 백까지 모든것을 조국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며 빠른 시일안에 해야





하는 초행길이였다. 배울데도 없었고 배워주는 사람도 없었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었다.

기업소에는 주체철생산체계확립을 위한 지휘조가 조직되고 대형산소분리기총조립공사와 종전 용광로의 해체 및 로제작설치공사, 원료공급계통, 용수계통, 공기압축기설치와 변전소개건, 보이라, 발전기설치를 비롯한 어렵고 방대한 공사들이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한편 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 초고전력전기로의 현대화, 고온공기연소기술의 도입, 합금철생산기지건설과 중량레루생산체계의 완비에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선행시켰다.

기술자들은 사색과 탐구로 새날을 맞고 보냈으며 로동자들은 용접불꽃날리는 현장에서, 제관품조립과 천수백종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침식하며 전투를 벌렸다. 그나날 그들이 뼈에 새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이 곧 국력을 강화하고 인민경제전반을 추켜세우는 관건적인 문제라는것이였다.

그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6개월이 걸려야 한다던 대형산소분리기최종조립을 한달동안에 끝내게 하였고 시운전에서 단번성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동시에 용광로와 주파수변환기실을 비롯한 여러 공사건설과제를 기한전에 끝내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기려과기를 제작하였다. 하여 그들은 주체104(2015)년 11월 마침내 용광로에서 첫 주체철을 뽑아낼수 있었다.

그후 기업소에서는 15 000㎥ 산소분리기 통합자동조종체계와 13 000㎾주파수변환기 PLC조종프로그람을 실정에 맞게 새로 개발도입하여 산소열법에 의한 주체철생산계획수행의 돌파구도 열어놓았다.

얼마전에는 산소열법용광로대보수공사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자신들을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사는 황철로동계급은 지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받들고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당이 제시한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완수할 열의에 충만되여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연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견인불발의 투지로 혁명앞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더 엄혹한 시련이 막아나서도 추호의 변심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라는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시였다.

오늘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혁명위업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되고 완성되여가고있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주체101(2012)년 1월 1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건립할것을 결정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가 엄숙히 공표되였다.

온 나라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였을 때 온 나라 인민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라고 목메여 부르고 또 부르며 그이의 영상을 못견디게 그리였다.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주고싶다 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인민들은 하루빨리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실것을 간절히 소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강렬한 열망을 헤아려주시였다.

벌써 오래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창작할데 대한 발기를 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그이의 태양상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던 경애하는 그이이시였다.

그러나 그토록 품을 들여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시고 다함없는 행복의 순간을 기다려 정히 간수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피눈물의 언덕에 모시지 않으면 안되게 되시였을 때 억장지성이 무너지는것만 같으시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다음해에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시는 사업이 시작되자 그이께서는 귀중한 사진문헌자료들을 수많이 보내주시여 창작사업에 참고할수 있게 해주시였다. 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만수대언덕에 오르시여 여러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세심한 지도를 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제막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모자이크벽화들을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하여 높이 모시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수령들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시는것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최고중대사이며 기본의 기본을 이룬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함께 생전의 모습 그대로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모실것을 발기하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공동결정을 공표하도록 하신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채택으로 수령영생의 만년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 수령영생위업실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되였다.

에서 삼으신 절대적기준은 최대의 정중성과 최상의 수준이였다.

손수 도안까지 그려가시며 태양궁전을 사소한 손색도 없이 꾸리시기 위하여 로고를 바치시였다.

외랑을 비롯한 태양궁전의 여러곳에 모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영상사진문헌들 한상한상에도, 전시되여있는 훈장, 메달들과 사적물들 하나하나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

그이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말그대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신 태양의 궁전인것만큼 인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궁전광장을 공원으로 꾸리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극한 충정과 거룩한 령도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은 인민들의 순결한 사상감정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정화시켜주고 수령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성지, 인민들의 마음의 구심점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단 한치의 편차도, 단 한걸음의 답보도 없이

그이께서 헤쳐오신 10년려정은 곧 어버이장군님의 영생의 10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굳건히 이어가실 불같은 결의를 다지시던 주체101(2012)년의 첫아침으로부터 오늘까지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가시였다.

그이의 가장 큰 기쁨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가지라도 더 관철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는것이고 가장 큰 아쉬움은 그 기쁨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시는것이였다.

인민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여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을 때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뇌이시였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나날 수령영생위업실현에 관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평양의 장대재언덕에 모시였다.

민족대국상의 나날 피눈물의 언덕에서 비분에 몸부림치는 인민을 일떠세워주신 그이께서는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하신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에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수령에 대한 도덕의리심을 최상의 높이에서 발휘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담화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과 거룩한 혁명생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영구불멸할 업적에 대하여 뜨겁게 돌이켜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꼭같이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생전의 모습으로 잘 모실데 대한 문제,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와 관련한 국가장의행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조직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 력사적선언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길에서 단 한치의 편차도, 단 한걸음의 답보도 없을 그이의 철석같은 맹세이기도 하시였다.

하기에 조국에서는 광명성절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 태양상을 모신 최고훈장, 최고상이 제정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금문자로 뚜렷이 아로새긴 당규약과 공화국의 헌법이 채택되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자!》와 같은 신념의 구호들을 심장깊이 새기고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산악처럼 떨쳐일어났다.

진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고결한 충정, 도덕의리심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수령들과 더 가까와지고 수령님과 장군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더 깊이, 더 뜨겁게 자리잡는 진정한 영생의 화폭이 이 땅우에 펼쳐졌으며 오늘도 련면히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엄향심



남만으로

(전호에서 계속)

이외에 다른 부류의 견해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적을 알고 자기도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도 자기도 다 모르면 백전백패한다는 리치를 내대는 신중론이였다.

신중론의 제창자들은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강적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수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갓 태여난 어린 싹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막강해지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지만 지금은 은밀히 활동하면서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힘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우리의 투쟁이 장기성을 띠는것만큼 근기있게 력량을 축적했다가 적이 약해지는 기회를 노려 일격에 쳐서 꺼꾸러뜨려야 한다고.

이 견해는 매우 미온적이고 시간을 가늠할수 없는 막연한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론의를 소사하에서 처음 한것이 아니였다. 고유수에서 혁명군을 조직할 때에도 그와 류사한 론의를 한적이 있었고 카륜에서 무장투쟁로선을 확정하고 명월구회의에서 조직적인 유격전쟁을 전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할 때에도 그와 비슷한 론의를 한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전부터 우리와 조직생활을 같이해온 동무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의도를 원만히 파악할수 없었다.

대오안에서 중요한 로선상 문제를 놓고 이처럼 각이한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청소한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실례라고 할수 있다. 우리 부대는 직업과 지식정도, 출신지역과 출신조직이 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여있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출판물들과 중학강의록 같은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면서 꾸준히 눈을 틔워온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장광자의 《소년방랑자》나 최서해의 《탈출기》와 같은 소설작품들을 읽고 사회개조의 푸른 꿈을 키워오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청년들도 있었으며 학교물은 조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적위대나 소년선봉대와 같은 혁명조직들에서 몇해동안 정치적수련을 쌓아오다가 총을 한자루씩 얻어가지고 무장대오에 들어선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물현상을 리해하는데서 자연히 수준상 층하가 생기기마련이였다.

이런 실태는 우리로 하여금 부대내에서 사상의 유일성, 행동의 일치성, 관습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첫 공정으로 유격대의 전술적원칙과 중요한 로선상 문제에 대한 리해에서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것과 이 공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갓 태여난 반일인민유격대가 첫걸음에서부터 조난의 위기에 처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나는 차광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전술적의도를 잘 리해하지 못하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장소조론은 안중근의 전철을 밟겠다는 사상이다. 테로로써 일제를 굴복시키겠다는것은 망상이다. 이등박문은 죽었지만 일본의 통치는 그대로 살아서 오히려 〈만주국〉의 조작까지 보고 지금은 중국본토에까지 촉수를 뻗치고있지 않는가. 경우에 따라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조활동을 할 때도 있겠지만 소조가 기본적인 전투단위로 되여서는 안된다.》

《전면적무장공격으로 즉시에 이행하자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100명 남짓한 부대를 가지고 수십수백만을 헤아리는 일본의 대군과 정면으로 맞불어 싸우겠다는것은 언어도단이다. 100명의 돌격전으로 수십만대군을 누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솔한 판단이겠는가. 동무들, 제발 적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분간은 중대를 기본단위로 하여 유격전을 벌리자. 소조단위로 활동해가지고서는 큰 일을 치르지 못한다. 앞으로 부대가 커지면 더 큰 단위로 활동할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중대단위로 움직이는것이 가장 리상적이다. 처음부터 대부대를 무을 형편이 못된다는것이야 동무들도 잘 알고있지 않는가. 항일전쟁은 몇번의 전투로 끝나는 단기전이 될수 없다. 그러므로 적은 력량으로 시작을 뗀 다음 전쟁과정에 무력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확대하였다가 때가 되면 전인민적무장봉기와 배합된 결전으로써 최후승리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경편한 무장을 갖추고 령활하게 기동하면서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적은 각개격파하며 큰 적은 피하고 작은 적은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시종일관 대방에 대한 전략전술적우세를 보장하며 부단한 소모전으로 일제를 타승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격전이며 여기에 바로 유격전의 묘미가 있다. 싸움은 하지 않고 력량만 살금살금 축적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일격에 적을 때려부시자고 주장하는 신중론자동무들, 투쟁과 희생이 없이 그리고 류혈이 없이 때가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독립할 기회를 선사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가 투쟁으로써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나는 이런 말로써 대원들에게 우리의 의도를 납득시키였다.

물론 모든 대원들이 즉석에서 내 말을 다 리해한것은 아니였다. 개중에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나는 실천투쟁만이 십인십색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론쟁에 아퀴를 짓고 진리가 어느쪽에 있는가를 판정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격대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항일전쟁의 길에 나선 우리 부대앞에는 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업들이 제기되고있었다.

첫째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켜야 하였다.

둘째로, 부대를 질량적으로 급속히 확대강화해야 하였다. 셋째로, 혁명군대가 의거할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고 유격대의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야 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남만원정에서 찾고 그것을 1932년 한해동안의 주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는 다른 현이나 구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을 가지고있었다. 다른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출신들로 조직되였다면 안도유격대는 동만, 남만의 여러 현에서 선발된 전위분자들과 국내에서 들어온 선각자들로 구성되여있었다. 다른 지방의 유격대가 자기 지방에 정착하여 활동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면 우리 부대는 판도를 한두고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백두산지구와 압록강, 두만강연안의 전반적지역에서 활동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안도는 지역적으로 볼 때 유격전에 매우 유리한 고장이였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있을수 없었다.

방금 껍질을 터치고 태여난 우리 유격대는 광활한 대지에 나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줄기와 가지를 자래우고 인민들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였다. 성급하게 투쟁일면에만 치우치는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자기 보존만을 생각하면서 한자리에 앉아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는것도 용납할수 없었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첫 출발을 원정으로 선택한 하나의 중요한 리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남만원정의 주되는 당면목적은 압록강연안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부대들과의 련계를 맺는것이였다.

남만의 통화지방에는 량세봉사령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가 주둔하고있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공동전선을 맺으려고 하였다.

량세봉의 관할하에 있는 독립군력량이 수백명이나 되였다.

그 부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조국의 군력이 강하고 사회주의건설이 힘차게 다그쳐지고있다.

주체100(2011)년 12월 30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은 그 이듬해 새해의 첫 아침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상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그날 그이께서는 오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데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달음으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현지지도는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그 마음을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혀주시고 인민군대를 으뜸가는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정력적인 령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사상과 군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시였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해주시며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여 군인들이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후 처음



으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강병이 있어 강국이 있다.

그이께서는 강력한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군인들속에서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도 지펴주시고 인민군부대들의 실동훈련과 훈련경기들도 지도해주시며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이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최정예전투대오로 자라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조국방선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다.

최대열점지역인 판문점, 서남전선수역의 최남단에 위치한 장재도와 무도, 위험천만한 하늘길과 배길 …

그이의 령도밑에 인민군장병들은 영웅적전투정신, 대담무쌍한 공격방식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들로 자라나게 되였고 언제나 격동상태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제일결사대로, 최강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강군으로 준비되게 되였다.

오늘날 나라의 평화수호를 위한 강력한 보검을 마련하는 력사적대업이 최상의 수준에서 이룩되게 된것도 그이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과시된 강력한 전쟁억제력인 첨단무장장비들에는 그이의 천만로고와 헌신이 력력히 깃들어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뿐 아니라 부강조국건설에서도 자기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웠고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복구장마다에서 위훈을 창조하였다.

정녕 전군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 일당백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될수 있은것은 그이의 빛나는 령도의 결실이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며 불패의 군력에 떠받들린 조국은 반드시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일군들에게 새겨주신 좌우명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승리만을 떨쳐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된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군들이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민위천은 국가활동의 출발점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민위천은 우리 당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이며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이고 국가활동의 출발점이라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고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는 우리의 정치는 참다운 사회주의정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국호도,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명칭과 여러가지 명예칭호도 인민이라는 말과 결부하여 부르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 우리 제도, 우리 정치의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상징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주체53(1964)년 6월 19일]하신지 몇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같이하신 자리에서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것이다, 사람들의 진속을 알자면 사람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업과 생활정형을 전면적으로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괴로와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괴로와하고 그들의 가슴에 맺힌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끝까지 풀어주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일군들을 따르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수 있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당일군들은 뜨거운 동지애를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군중이 스스로 당조직을 찾아와서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서슴없이 터놓고 의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꽃과 나비

주체59(1970)년 여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호수가에 잠시 머무르시였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나는 호수가의 전경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벌과 나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어느것이 향기가 있는 꽃이고 어느것이 향기가 없는 꽃인가를 쉽게 가려낼수 있다고, 이러한 리치는 인간생활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꽃은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당일군은 인정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당일군의 향기는 곧 인간성과 인정미라고 하신 그이의 교시를 새겨들으며 일군들은 하나의 자연현상에서 생활의 리치, 당사업의 리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였다.

이윽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벌과 나비가 향기로운 꽃을 찾아오는것은 향기가 풍기는 꽃에 꽃꿀이 있고 꽃꿀을 날라가야 살아갈수 있기때문이며 꽃이 향기를 풍기는것은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야 가루받이가 잘되여 열매를 맺을수 있기때문이다, 당과 인민의 관계도 그 리치는 똑같다, 인민대중은 자기 전위조직인 당에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당의 령도를 받아야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으며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워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들으며 일군들은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라는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였다.

본사기자

위민헌신의 나날에

발전소의 철사다리

주체108(2019)년 5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야강2호발전소를 찾으시였다.

출렁이는 물결을 품어안고 거연히 서있는 언제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금야강2호발전소언제를 정말 멋있는 위치에 건설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잠시후 발전소운영실태를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조정지순회점검다리로 올라가는 곳에 설치된 철사다리를 띄여보시고 언제로 올라가보자고 하시며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당황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 철사다리는 발전소의 근무성원들이 언제와 수문의 상태, 수위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순찰할 때 리용하는것이였는데 경사가 매우 급하고 협소하였다.

한 일군이 만류하였으나 그이께서는 철사다리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철사다리를 타고 오르시여 조정지순회점검다리의 한가운데 서신 그이께서는 저수량이 괜찮다고, 물이 언제나 차있으니 전기를 생산하는것은 물론 그 물로 음료수도 보장하고 농사도 지을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군당책임일군에게 군안의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군당책임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제 발전기를 더 설치하여 전기덕을 단단히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그제서야 뭇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여기에까지 굳이 오르신 그이의 심중이 헤아려졌다.

혼연일체의 화폭

주체101(2012)년 5월 1일 북방의 한 기계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 새로 일떠선 문화봉사기지에도 들리시였다.

수영장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물온도가 알맞춤한가 가늠해보시고 로동자들이 조용한 곳에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리발실에 들리시여 내가 여기에 와서 머리를 깎아도 되는가고, 누가 깎아줄수 있는가고 리발사들에게 다정히 물으시였다.

저저마다 자기가 깎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리발사들에게 그러면 내가 이 동무들에게 머리깎는것을 맡겨볼가라고 하시며 후날 한번 꼭 시간을 내서 머리깎으러 오겠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전자오락실에도 들리신 그이께서는 각종 전자오락기구들까지 갖추고있어 대단하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리고 체육관의 롱구장에서는 공을 직접 바닥에 쳐보시고 그 울림정도를 가늠해보시며 방음장치를 아주 잘했다고 평가하시고 탁구장에 가시여서는 탁구채도 만져보시면서 그 질을 가늠해보시고 로동자들이 좋아하겠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 이곳 봉사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말씀하시였을 때였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봉사자들이 그이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며 달려나왔다.

그들가운데는 군사복무를 할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실 날만을 기다려왔다며 그이의 팔에 매여달리는 제대군인녀성도 있었고 그이의 옆자리에 서겠다고 싱갱이하면서 량팔에 매달리는 봉사자들도 있었다.

그러는 그들을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이께서는 어서 사진을 찍자고,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품으로 아이들처럼 저저마다 안겨드는 그 모습은 령도자와 인민이 한가정, 한식솔을 이룬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이였다.

본사기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

오늘 세계에는 여러가지 세계관들이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밝힌것은 오직 조선의 주체철학뿐이다.

주체철학은 우선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밝히였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의 모든 철학은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존재나 정신위주의 세계관, 물질위주의 세계관이였다.

맑스주의에 의하여 세계에 대한 유물변증법적견해가 확립되였고 인류앞에는 세계에 대한 견해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립할데 대한 철학적과제가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독창적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이 밝혀졌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이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종되며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요구에 맞게 개변된다는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지진, 해일, 태풍과 같이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지 않은것이 많다. 그러나 력사가 흐르고 사람이 발전하는데 따라 세계의 보다 많은 령역과 대상이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주체철학이 밝힌 세계발전의 합법칙성은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한 세계의 발전,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에로의 세계의 발전, 사람의 발전에 따르는 세계의 가속적발전이다.

여기서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세계가 발전한다는것은 세계가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개변된다는것이다.

지금도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령역은 지구적범위를 벗어나 우주세계에로, 거대한 사물현상으로부터 미세한 소립자에로, 보통조건에 있는 사물현상으로부터 특수한 조건에 있는 사물현상으로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세계는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현실을 둘러보면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사람들의 투쟁에 의해 낡은것이 전복되고 선진적인 사회가 수립된다.

세계는 사람의 발전에 따라 가속적으로 발전한다.

사회의 발전과정만 놓고보아도 원시사회는 수십만년동안, 노예사회는 수천년동안, 봉건사회는 2 000여년동안 존재하였다.

주체철학은 다음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히였다.

이것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존재하는 사회적현상의 진보성과 반동성,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 아름다운것과 추한것 등은 다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얼마나 부합되며 사람에게 얼마나 리로운가 하는데 의하여 평가된다. 물질적재부도 아무리 경제적리익이 크다 하여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주고 사람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이라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것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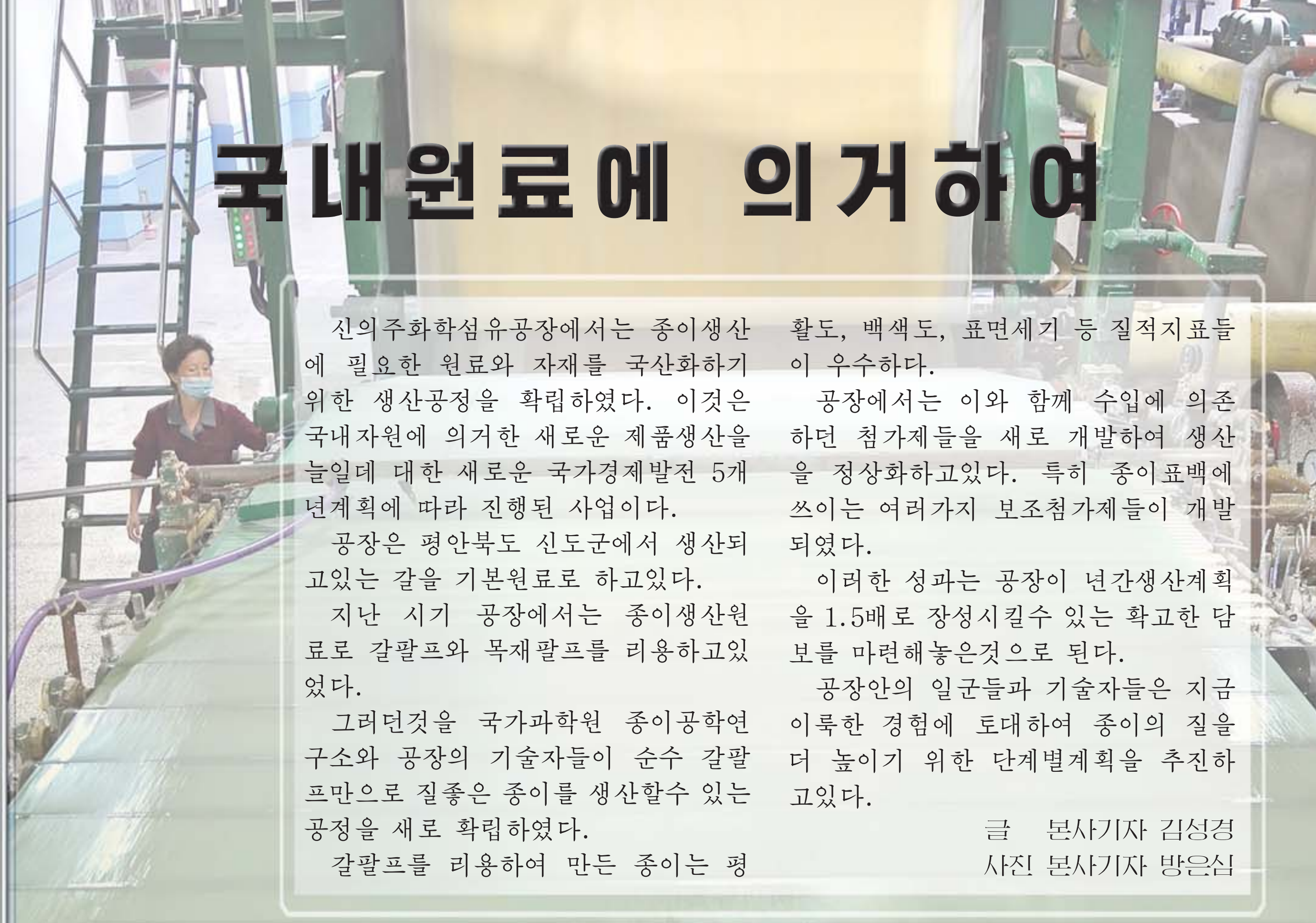
하기에 조선에서는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자연재해가 련이어 들이닥치고있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최우선, 절대시하고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 역시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사람의 역할을 결정적요인으로 보고있다.

세계를 개조변혁하는데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비롯한 객관적요인들의 작용을 무시할수는 없지만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이다.

이렇듯 주체철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남혁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서는 종이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이것은 국내자원에 의거한 새로운 제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공장은 평안북도 신도군에서 생산되고있는 갈을 기본원료로 하고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종이생산원료로 갈팔프와 목재팔프를 리용하고있었다.

그러던것을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와 공장의 기술자들이 순수 갈팔프만으로 질좋은 종이를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새로 확립하였다.

갈팔프를 리용하여 만든 종이는 평활도, 백색도, 표면세기 등 질적지표들이 우수하다.

공장에서는 이와 함께 수입에 의존하던 첨가제들을 새로 개발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특히 종이표백에 쓰이는 여러가지 보조첨가제들이 개발되였다.

이러한 성과는 공장이 년간생산계획을 1.5배로 장성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은것으로 된다.

공장안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지금 이룩한 경험에 토대하여 종이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단계별계획을 추진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감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조선서해의 광량만에 수백만t이나 매장되여있는 류황감탕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질좋은 치료용감탕으로 평가되고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서조선만에 위치하고있는 광량만은 해양생태환경이 좋아 세계적인 록색지대로 인정되고있다.

0.6~0.8%의 류황성분이 들어있고 18종의 필수아미노산과 12종의 생리활성물질들, 80여종의 다량 및 미량원소들과 여러가지 무기, 유기물질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는 광량만류황감탕은 사람들속에서 일명 《천연피부건강제》, 《천연로화방지제》로 관심을 모으고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위치하고있는 광량만류황감탕가공공장은 여러가지 감탕제품으로 하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의료용감탕생산이 공업화된 공장에서는 감탕성분들을 이온 및 나노화하여 얻은 감탕추출액으로 치료약물들과 기능성화장품들을 수십가지나 생산하고있다.

피부영양제, 살결물, 미백크림, 영양크림, 마싸지겔, 샴푸, 린스, 세수비누 등의 제품들은 피부영양과 보습, 자외선방지 등의 작용을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인기제품으로 되고있다.

특히 류황감탕압출액과 전통적인 고려약재를 배합하여 제조한 한증욕제는 로페물제거와 땀나기작용, 피순환개선효과가 뚜렷하여 수요가 높다.

공장의 제품들은 국내는 물론 여러 나라들의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과 전람회들, 여러 국제상품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장에서는 천연감탕을 각종 치료봉사에도 리용하고있는데 감탕욕과 감탕찜질, 감탕미안 등은 각종 신경통과 산부인과질환, 소화기질환, 운동기능장애, 비만증치료에 효과가 뚜렷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세계적인 천연광물자원인 광량만감탕으로 유명해진 공장은 끊임없는 새 제품개발사업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더욱더 가까워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첨단기술개발원

《첨단기술의 개발과 그에 기초한 생산,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을 교육사업에 인입하는것은 현시기 교육발전과 경제장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나서고있다.》

이것은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원장 박창섭의 말이다.

첨단기술개발원은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재료공학, 기계전자기술과 같은 핵심기초기술부문의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단위이다.

첨단기술개발원은 주체103(2014)년에 조직되였다.

첨단기술개발원에는 수십개의 연구실과 실험실, 생산실이 있으며 전시실, 토론회실, 공동개발실 등도 있다.











기계전자제품개발구역, 생물공학제품개발구역, 전자재료제품개발구역 등 9개의 개발구역들에는 수백종의 설비들이 갖추어져있어 연구와 교육을 담보해주고있다.

첨단기술개발원에는 원사, 후보원사를 비롯하여 수십명의 교수, 박사들과 많은 연구사들이 있다. 그들은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가치있는 론문들을 발표하였다.

이곳에서는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 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직진행하며 지적제품 및 첨단기술들을 개발해내고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과 콤퓨터보안기술, GMP인증기술, 유전자조작기술을 리용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하였으며 전국가적인 보건정보망을 신속히 구축하여 방역사업에 이바지하였다.

보안성능을 훨씬 개선한 통합정보보안기술, 수천명이 공유할수 있는 화상회의체계, 미생물에 의한 유가금속침출기술, 유전자공학적방법에 의한 먹이첨가제용효소피타제의 공업적생산기술, 초음파기술을 응용한 전방향어군탐지기 등은 여러 전시회와 기업체들에서 평가를 받았다.

첨단기술개발원의 여러 연구소들가운데서도 정보기술연구소는 최근 3년간 해마다 국가 10대 최우수정보기술기업칭호를 수여받아 국가적으로 관록있는 쏘프트개발단위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우리 개발원에서는 많은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러나 개발 그자체보다 더 중요한것이 있다. 그것은 개발과정을 통하여 대학생들을 실천형의 인재, 개발창조형인재로 키우는것이다.》라고 부원장 김철호는 말하였다.

첨단기술개발원에서는 연구사들이 해당학부학생들의 전공과목강의와 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신연구성과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과정안에 따르는 학생들의 실험실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한편 대학생들이 착상, 설계한 안들을 연구사들과 함께 직접 개발,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천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첨단기술개발원에서는 정보과학부와 수학부, 전자자동화학부 등 여러 학부의 실력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국가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연구사업에 망라시켜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워내고있다.

첨단기술개발원은 국내과학기술최고상인 2.16과학기술상만 해도 6차례 수여받았으며 많은 연구성과들이 전국과학기술축전과 정보화성과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축전, 전시회, 발표회들에서 입선하였다.

첨단제품의 부단한 개발과 창조형의 인재육성, 이것은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이 내세우고있는 항구적인 목표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명국
리진혁
주체108(2019)년 촬영









지적자원에 대한 보호관리사업



기술사사업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세계적으로 자연부원과 에네르기자원이 급속히 고갈되여가고있는 반면에 지적자원은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중구역 외성동에 자리잡고있는 삼천리지적자원기술사에서는 주체102(2013)년 창립후부터 오늘까지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 등 지적소유권분야에 대한 법률대리활동과 보급선전을 전문으로 진행하여오고있다. 이곳에서는 지적소유권의 신청(민족 또는 국제)과 등록, 소송과 분쟁해결, 상담과 자문봉사를 하고있다. 그리고 공보싸이트를 통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식을 높이는데도 적지 않게 이바지하고있다.

해외대리인들은 조국의 지적소유권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실천적이고도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 지적소유권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 조국의 지적소유권들에 대한 등록과 그 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최근 그들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협약과 협정, 해당 나라들의 법률적요구에 맞게 조국의 특산품과 명제품의 상표들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상표, 공업도안, 원산지명들을 다른 나라에 적극 등록하고 보호를 받기 위한 사업을 벌린 결과 《천아포》, 《류경》, 《상원》, 《강서약수》, 《대동강맥주》와 같은 수십개의 상표들을 중국, 도이췰란드, 로씨야,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들에 등록하였다.

기술사에서는 전자수속대리업무를 활발히 진행하여 신청자들의 수속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하는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기술사의 홈페지개발자들은 공보싸이트 《삼천리금수강산》을 통해 생산단위들의 명상품, 명제품들에 대한 소개사업과 해당 기업체, 단체의 상표가 국내외에 정확히 등록되여 법적으로 보호된 정형을 공보하여주는 체계를 개발하여 운영을 활발히 진행해나가고있다.

기술사에서는 중국, 도이췰란드, 뽀르뚜갈 등 다른 나라들의 상표권을 조선에 등록하고 그를 보호하는 업무도 맡아 수행하고있다.

사장 리충복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지적소유권분야에 대한 법률대리활동과 보급선전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할뿐아니라 지적소유권의 대상범위를 부단히 확대하고 그 영향력을 더욱 높여나갈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리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대리인들이 책임성을 높여간다.



상표선전사업을 진행한다.



법률상의 방조활동으로



사건처리에서의 과학성,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한다.

조선변호사회 룡남산법률사무소는 공화국공민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종합적인 법률봉사기관이다.

사무소는 조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과 외국공민, 법인들에게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법률상 방조활동을 진행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4년전 10월에 설립된 사무소는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에서 민법, 국제무역법, 지적소유권법, 국제법, 형법, 국가관리법 등에 대한 교수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실력있는 40여명의 교원, 연구사들을 변호사로 두고있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많은 단체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소송대리업무와 국제중재대리업무를 맡아 해결한 사무소는 의뢰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법률상담 및 회보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돌려 사회의 법질서확립과 대외민사분쟁해결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사무소소장 리광일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조국의 현실에 보조를 맞추어 전체 인민이 정연한 제도와 질서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려는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일념밑에 사무소에서는 《척척변호사》, 《법무생활》을 비롯하여 준법교양에 이바지하는 법률도서들과 프로그람들을 집필, 개발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나라 법률사무소들과의 교류도 진행하고있다.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견지하여 인민을 지키는 공화국법의 생활력을 더욱 발휘해나가는것이 이곳 법률가들이 일관하게 중시하는 리념이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가풍

평양안경상점 경리 송성희는 경영활동에서의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 남다른 기질로 하여 오늘날 해외동포상공인들과 다른 나라 기업가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지금 상점은 각 지방과 해외에 많은 분점과 지사들을 가지고있다.

송성희의 성공에 대해 말할때 사람들은 지난 수십년세월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을 위해 바쳐온 그의 헌신을 먼저 본다. 애국적인 상공인으로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아버지 송대관의 뜻을 이어 송성희는 주체80(1991)년 의사직업을 안경수리공으로 바꾸고 봉사자의 첫걸음을 떼였다.

그의 아버지는 해방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필생산기지를 차려놓고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였으며 그후에도 나라와 인민을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사회주의애국렬사이다.

평양광학유리생산협동조합관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인민들의 시력증진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송성희에게 한생 거울로 삼아야 할 참된 애국자로 깊이 새겨졌다.

(아버지처럼 나도 애국의 길을 걸으리라.)

나라에서는 그가 종합적인 봉사기지인 평양안경상점을 책임지고 각 지방들에 안경분점과 수리기지들을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는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공장과 기업소, 과학연구기관들과 건설장, 농장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 직접 나가 근로자들의 시력도 정상적으로 검사해주었고 기호와 요구에 맞는 각이한 안경들을 봉사해주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수천명의 전쟁로병들에게 고급안경을 무상으로 봉사해준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사회와 인민을 위하는 그의 애국적소행은 안경봉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해마다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여러 공장들을 찾아 아낌없는 지원사업도 진행하였다.

한두해도 아닌 30여년간 하루와 같이 진행되는 그의 자원활동을 두고 외국인기업가들은 그에게 이렇게 묻군 한다.

《그렇게 바치기만 하면 상점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때마다 그는 인민이 좋아하면 그만이라고 대답하군 한다.

그는 나라와 인민을 위한 복무를 삶의 가장 큰 재부로, 기쁨으로 간주하고있다.

그의 애국적소행은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 중앙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값높은 명예칭호로 빛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송성희



아버지 송대관과 함께



주체103(2014)년 몽골대표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토론을 하고있는 송성희

부자미술가

12년전 김예광이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로 배치되여 일할 때 많은 선배들은 그의 불같은 열정에 탄복해마지 않았다.

그는 하루 2~3시간 자면서 조선화, 유화의 다양한 기법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었다.

늘 창작실에서 살다싶이한 그는 생활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화폭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자세로 그는 새 기적창조의 열의드높이 일터로 가는 제사공처녀들의 밝은 모습을 형상한 《보람찬 일터로》를 명화로 창작하였다.

필치가 대담하고 현대맛이 강하게 풍기는 그의 그림을 보며 동료들과 로화가들은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후 그가 창작한 《비운이 드리운 나라》, 《사령부귀틀집에서》, 《백두대지의 봄》을 비롯한 작품들은 국가적명절마다 진행되는 국가미술전람회들에서 1등으로 평가되였다.

그의 작품들이 국가소장품으로 한점한점 등록될 때마다 로화가들은 대끌에서 대가 나온다고,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말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 나라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만수대창작사 부사장이며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김성민이다.

40여년의 창작활동기간 조









아버지 김성민과 그의 작품들



조선화 《90년대의 불사조들》



조선화 《장고춤》



아들 김예광과 그의 작품들



유화 《한전호가에서》



유화 《오가산에서》

선화 《지난날의 용해공들》, 《90년대의 불사조들》, 《칼춤》을 비롯하여 수백점의 국보적작품을 창작한 김성민부사장은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박사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속에 김예광창작가는 어릴 때부터 놀이감보다 먼저 조선화색감들과 화판, 붓을 먼저 보았고 언제나 화판에 마주앉아 그림을 그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눈에 익혀왔다.

김성민부사장은 아들이 서뿔리 붓을 들것을 바라지 않았다.

부사장자신이 조국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여 스스로 붓을 들었듯이 아들도 그렇게 화판에 설것을 원했다.

그는 창작지도로 바빴지만 휴식일이면 아들의 손목을 잡고 만경봉, 모란봉에 올라 자연과 생활을 관찰하는 눈을 틔워주었다.

뿐만아니라 아들에게 화보, 화첩을 비롯한 많은 출판물을 통하여 미술과 접촉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었으며 휴식일이면 그의 손을 이끌고 조선미술박물관을 참관하며 선배들이 창조해놓은 미술유산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예광의 마음속에는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가 소중한 의미로 자리잡았다.

그는 중학교때부터 책가방과 함께 화판을 메고다니며 미술에 대한 개념과 기초를 부단히 숙련하였다.

그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와 평양미술대학에서 그는 여러 화법들을 부단히 터득하였다.

아버지는 그가 창작한 소묘, 조선화, 유화를 보고 언제나 혹독한 평가를 내리군 하였다.

아버지의 높은 요구속에 그는 창작기량을 더욱 세련시켜 3년전에는 여러 창작가들과 함께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주체108(2019)년 김예광창작가는 공훈예술가로 되였다.

공훈예술가칭호를 받던 날 로화가들은 김성민부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부터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고 했는데 예광창작가는 아버지를 따라앞설것같구만.》

김성민부사장과 김예광창작가, 부자미술가인 이들은 오늘도 함께 붓을 달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12월 3일 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본사기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장애자문제는 나라의 문명수준과 결부되여있지 않는가.

부위원장: 그렇다. 장애자들의 생존률, 사회적처지, 그들을 위한 보장조건은 해당 나라의 보건, 교육, 법률제도 등이 발전되였는가, 발전도상인가, 후진국수준인가를 평가하고있다.

때문에 이전에는 그 어느 나라나 장애자가 있는것을 나라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문명하지 못한것으로 여기면서 장애자수를 밝히는것을 꺼려왔지만 오늘날에는 장애자보호문제를 해당 나라의 발전정도, 문명수준과 결부시켜보고있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의 력사는 언제부터인가?

부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이 주체92(2003)년 6월에 제정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장애자보호사업이 진행된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조국에서는 해방직후부터 장애자보호사업이 진행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애자들도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 보시고 장애자보호사업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첫 로동법령인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 불구자들의 생활조건보장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시였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의 첫 발단으로 되였다.

주체37(1948)년 2월에는 첫 장애자조직인 북조선민주맹인동맹 중앙위원회가 창설되였다.

나라에서는 언제나 장애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위한 모든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3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협의회가 진행되였는데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예군인학교를 설치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결론에서 영예군인들과 적들의 만행에 의하여 불구자로 된 애국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책임지고 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영예군인학교를 설치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기능을 배워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영예군인학교로 공업과 농업, 부기 등 부문별학교들을 내올데 대한 문제, 교육기간과 과정안, 교수요강문제, 학교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할데 대한 문제, 지어 학생들의 학용품과 교복, 생활필수품과 의수와 의족을 무상으로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학교를 내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국가의 관심속에 조국에는 도처에 무료교육의 롱아학교와 맹인학교들이 일떠서고 장애자들을 위한 공장들과 편의봉사기관들, 료양소들이 꾸려져 장애자보호사업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주체87(1998)년 7월 조선불구자지원협회가 창설되였고 주체94(2005)년에는 그것을 승격시켜 나라의 장애자보호사업을 전임으로 맡아보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나왔다.

또한 주체92(2003)년 6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되여 사회생활의 전반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이 폭넓게 진행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그때로부터 조선장애자보호련맹에서는 영예군인들과 장애자들에게 수지교정기구들을 착용시켰으며 수만점의 밀차, 지팡이, 허리띠, 보청기를 비롯한 장애자보조기구들을 공급하였다.

기자: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산하에 장애자들을 위한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부위원장: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조선롱맹경제문화교류사,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장애자직업기술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으며 각 도, 시, 군들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가 세워져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자들은 장애자들을 위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있으며 재능이 있는 장애자들은 전문교육기관들에서 기술을 배우고있다.

조국에는 글을 모르는 장애자나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직업이 없는 장애자는 단 한명도 없다.

기자: 장애자들이 사회의 당당한 성원이 되여 활약하고있는것은 물론 국제무대에서까지 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부위원장: 그렇다.

주체101(2012)년 제14차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장애자수영선수가 참가하였고 장애자체육선수들은 주체107(2018)년 제12차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경기대회들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장애자예술인들도 유럽을 방문하여 서방세계를 뒤흔들어놓고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의 발전과 우월성을 과시하였다.

전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롱아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위주로 한 우리 장애자예술인들은 영국에서 3차례, 프랑스에서 2차례 공연을 진행하여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수많은 관중들이 무대에 올라와 출연자들을 에워싸고 몸짓, 손짓을 써가며 정말 장애자가 맞는가를 가늠해보고는 장애자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전문예술단의 공연으로 착각할번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저저마다 우리 장애자들과 사진을 찍겠다고 싱갱이질을 하였는데 서로 몸짓,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양이 그들모두가 장애자가 된듯싶었다.

비록 보지 못하지만 피아노와 손풍금, 가야금을 재치있게 연주하고 전혀 듣지 못하지만 여러명이 빠른 리듬의 춤을 추는 장애자들의 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조선인민들이 왜 자기의 사회주의제도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목숨으로 지켜가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는것, 장애자들의 웃음과 랑만에 넘친 모습은 절대로 지어낼수 없다는것, 공연만 보아도 조선의 인권보장수준을 알수 있다고 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언론계가 우리 장애자들의 예술공연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영국에서 마지막공연을 하게 된 전날밤 맹인손풍금수 강은혁은 《저는 태여나서부터 아직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성장해왔습니다. 예로부터 어머니는 병신자식 탓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저의 불행한 처지를 놓고 어머니를 속으로 원망한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리쳐 웨치고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어 고맙습니다. 저는 불행한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아무런 꾸밈도 가식도 없는 그의 이 말은 온 나라 장애자들의 심정 그대로였다.

정말 자연계에는 그늘진 곳이 있을수 있어도 우리 제도에는 그늘진 곳, 그늘진 마음을 가진 장애자들이 있을수 없다.

기자: 이야기를 듣고보니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감사하다.

* * *

조선속담 (기쁨)

- 경사엔 조상도 온다

기쁜 일에는 귀중한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는것을 이르는 말.

- 돈놓고는 못웃어도 아이놓고는 웃는다

돈보다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귀중하고 생활의 기쁨으로 된다는것을 이르는 말.

- 며느리보자 손자본다

며느리를 맞은 기쁨우에 또 손자까지 본 기쁨이 겹친다는 뜻으로 기쁜 일이 겹쳐든다는 말.

- 무소식이 희소식

소식이 없는것은 무사히 있다는 뜻으로 그것이 곧 기쁜 소식이라는것을 이르는 말.

* * *

한구멍에 의한 수술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

오늘 세계적인 종양외과의 발전추세는 저침습수술이다. 이러한 저침습수술에서 가장 선진적인것이 한구멍에 의한 수술방법이라고 한다.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 실장 박경진은 조국에서 처음으로 한구멍에 의한 저침습수술방법을 페암치료에 도입하였다. 이 첨단수술방법으로 그가 회복시킨 페암환자만 하여도 수십명에 달한다.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였다.

몇해전 그는 우연한 기회에 이 수술방법에 대해 알게 되였다고 한다.

그것은 환자의 견지에서 볼 때 수술후 동통이 약하고 수술흠집이 매우 작을뿐 아니라 회복기일이 빠르고 창상감염률도 낮으며 유착이 전혀 없는것이 특징이였다. 병원의 견지에서는 페암수술환자의 입원기일이 침습수술때 13~20일이였다면 저침습수술때에는 3~7일로서 침대회전수를 높일수 있고 의료소모품과 의약품소비가 적은것이였다.



한구멍에 의한 저침습수술의 우월성은 흉부연구사인 박경진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당시까지만 해도 침습수술시 흉부의 근육절단과 륵골골절, 륵간신경손상은 피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수술받은 환자들이 아픔을 호소하고있었다.

이것을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수술방법을 모색하고있던 그는 지체없이 저침습수술방법에 대한 최신의학기술자료들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파고들수록 흥미가 있었다. 그는 충분한 파악에 기초하여 조국의 현실적조건과 인민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수술수기를 하나하나 확립해나갔다.

새로운 수술방법을 페암수술에 도입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진 그는 먼저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10여점의 수술기구들과 수십점의 의료소모품을 국산화하였다.

연구소에서는 그를 핵심으로 하여 흉강경 및 복강경치료연구실을 내오고 여기에 20대, 30대의 연구사들을 망라시키였다. 그는 연구실의 성원들과 지혜를 합쳐 저침습수술을 손에 익힐수 있는 모의훈련기재를 창안제작하였다.

박경진과 연구사들은 한구멍에 의한 흉강경수술로 각이한 나이와 병증세를 가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과정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연구집단에서는 한구멍에 의한 저침습수술로 페암뿐 아니라 후두암, 식도암, 소화기암, 량성종격동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치료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지난 10월초 박경진실장은 화상토론에서 한구멍에 의한 흉강경수술로 페암환자들을 완치시킨 자료를 발표하였다.

도이췰란드교수는 조선에서 저침습수술방법을 암치료에 적용하는것과 같은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박경진은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치료예방사업은 고도의 질적수준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종양외과분야를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흥성이는 화초전시장





보통강구역 류경1동에 위치한 화초전시장에서는 말린꽃제품들을 봉사하고있다.

3층으로 되여있는 전시장의 1층에는 말린꽃제품들이 전시되여있다.

전시장에는 천일홍, 맨드라미, 장미, 카네숀, 국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초와 보리, 조, 지어는 자연풀들을 가지고 특색있게 만든 다종다양한 장식용화초제품들도 전시되여있다.

특히 꽃들이 활짝 핀 나무가지우에 앉은 두마리의 새가 형상된 말린꽃제품은 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말린꽃들을 사람들의 기호와 주문에 맞게 액틀과 장식유리, 꽃바구니 등을 리용하여 다양하게 만들어 봉사하고있다.

화초의 본래색갈과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있는 말린꽃제품들은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말린꽃제품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한다.

이곳을 찾은 평천구역 륙교1동에서 살고있는 최운철은 《결혼식날 이 전시장에서 기념으로 말린꽃제품을 샀는데 보면 볼수록 깊은 추억과 함께 생활의 향기를 더해주고있다. 그래서 나는 자주 이 전시장을 찾군 한다.》라고 말하였다.

《국화로 형상한 말린꽃제품을 집의 벽에 걸었는데 안해는 물론 아이들과 어머니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생일날에도 말린꽃제품을 마련하였다. 말린꽃제품에서는 미술작품이나 사진에서 볼수 없는 류다른 정서를 느낄수 있다.》라고 만경대구역 장훈1동에서 살고있는 리일혁은 이야기하였다.

전시장의 1층뿐 아니라 2, 3층에 있는 식사실들과 결혼식을 할수 있는 장소들에도 여러가지 꽃들이 장식되여 누구나 화원속에 들어선듯 한감을 느끼게 한다.

이곳 경리 안선희는 《4년전에 문을 연 전시장에서는 처음에 생화만을 봉사하였다. 그러나 말린꽃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말린꽃제품에 대한 봉사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사시절 활짝 피여있는 꽃들을 보면서 인민들이 즐거워하고 말린꽃이 사람들의 생활에 자리잡을수록 우리는 제품의 가지수를 더 늘이기 위한 봉사활동을 짜고들고있다.》라고 말하였다.

흰눈이 내리는 한겨울에도 꽃계절을 펼친 화초전시장.

흥성이는 이곳을 나서는 사람들의 손에 들리운 말리꽃제품들은 가정과 일터로 옮겨져 정서생활의 향기를 더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조국의 품에 안겨

애 착



박휘명

평양산원 실장 박휘명(39살)은 자주 아버지에 대해 추억하군 한다.

평양신발기계공장에서 설계기사로 일하던 그의 아버지 박세길은 퇴근후이면 도면을 펼쳐놓군 하였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열심히 계산해보고 또 해보았다.

그럴 때면 인민학교(당시)에 다니던 아들 박휘명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도 복습을 하나요?》

《그럼, 아버지가 해놓은 설계가 정확히 되였는지 다시한번 계산해본다. 그렇지 않으면 로동자아저씨들이 기계를 잘 만들수 없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그게 애국이다.》

평범하게 한 아버지의 말이였지만 이것은 휘명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휘명이가 평양제1중학교와 평양의학대학에서 공부할 때에도 아버지의 말은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었다.

아버지의 옳바른 교양이 있어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산원 유전연구실 연구사로 배치받은 휘명은 자기 일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진취적으로 사업하였다.

휘명은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말을 스쳐보내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선암화학치료의 개별화를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연구과제로 정하였다.

그는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구과정에 자신의 지식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 그는 평양의학대학 박사원에 입학하여 연구를 심화시켰다.

수많은 문헌탐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그는 《유선암과 몇가지 암관련유전자들사이의 련관성을 밝히기 위한 림상병리학적연구》라는 론문을 발표하였다.

휘명의 론문은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박사원을 졸업한 후 그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연구사가 되였으며 박사가 되였다.

얼마전에 휘명은 실장으로 임명되였다.

아들의 성과를 축하하며 그의 아버지(75살)는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오늘과 같이 성장한것을 보니 일본에서 같이 오지 못한 조카가 생각나는구나. 그애는 제 어머니병을 고치겠다고 고학으로 의학을 배웠는데 너는 한푼 들인것없이 대학과 박사원을 졸업하고 오늘은 실장이 되였다. 너는 조국의 고마움을 항상 페부로 느끼고 애국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

박휘명실장은 분자적수준에서의 유선암조기진단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상 식

몸단련에 좋은 피부마찰방법

- 손비비기

량손으로 각각 다른 손잔등을 50번 비빈 다음 두손바닥을 50번 비빈다. 명심할것은 두손에 열이 날 때까지 비벼야 한다는것이다. 정상적으로 손을 비비면 대뇌가 온몸의 흥분중추를 자극시키며 두손의 민활성, 유연성과 추위에 대한 견딜성을 높여주고 두손의 로쇠를 지연시켜준다.

- 이마비비기

먼저 왼손으로, 다음 오른손으로 번갈아 이마를 각각 50번 비빈다. 자주 이마를 비비면 정신을 맑게 하며 주름살이 생기는것을 막을수 있다.

- 코비비기

두손의 두번째 손가락으로 코잔등의 량쪽을 비빈다. 정상적으로 코를 비비면 감기와 코병의 발생을 방지할수 있다.

- 귀비비기

손바닥으로 귀를 50번 비빈다. 이렇게 하면 귀에 있는 혈을 자극하여 몸전체의 건강을 촉진시키며 청력을 높일수 있다.

- 배비비기

먼저 왼손으로, 다음 오른손으로 번갈아가면서 배를 각각 50번 비빈다. 정상적으로 배를 비비면 소화를 촉진시키고 변비를 방지할수 있다.

- 허리비비기

손바닥으로 허리를 50번 비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콩팥을 보호하고 허리를 든든하게 하며 원기를 돋구어줄수 있다.

- 발비비기

먼저 왼손으로 오른발바닥을 50번 비빈 다음 오른손으로 왼발바닥을 50번 비빈다. 발을 정상적으로 비비면 피순환을 촉진시키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일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손, 이마, 귀를 비빌 때 너무 세게 비비지 말며 코, 허리, 배와 발을 비빌 때에는 좀 세게 비비는것이다.

* * *

따뜻한 집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평양친선병원이 자리잡고있다.

근 50년의 연혁을 가지고있는 평양친선병원은 창립된 첫 시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을 치료하여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있다.

그들속에는 35살 젊은 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50대중반기까지 21년간이나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재중동포 양순애녀성도 있다.

주체93(2004)년 12월, 치료를 마치고 병원문을 나서던 그날 양순애녀성은 조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북받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며 감상록에 이런 글을 남기였다.

《외국의 여러 병원들에서 도저히 고칠수 없다고 하던 나의 병은 이곳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의 극진한 정성에 의하여 많이 나아져 이젠 집으로 돌아가게 되였습니다. 1~2년도 아니고 21년이라는 기간 나에게 바친 의사, 간호원들의 뜨거운 성의를 글에 담자면 아마 끝이 없을것입니다. 평양친선병원이야말로 따뜻한 조국의 품, 사랑의 집입니다.》

그 동포만이 아니다. 오래동안 앓던 당뇨병을 털어버리고 인슐린주사를 끊은 재미동포 리금순녀성과 뇌출혈,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되여 병원에 실려왔다가 제발로 걸어 병원문을 나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녀맹위원장 천재련, 재로동포 주희철, 남호기…

지금 평양친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나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선생님을 비롯한 병원의 모든 성원들이 나를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습니다. 세상에 과연 그 어느 나라에 불치의 병에 걸려 다 죽은 몸이나 같은 80고령의 환자를 이렇듯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의사들이 있겠습니까. 조국에는 의사들의 정성이 명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꼭맞는 말입니다. 》

돌이켜보면 두해전 그는 중국에서 자궁경부암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조국으로 나와 평양친선병원에서 치료받고있다.

병원에서는 그의 건강을 위해 고가약들과 보약재는 물론 영양가높은 치료식사도 품들여 마련하여주고있다.

담당의사 허철미는 과학적인 치료대책을 세워나가고있으며 담당간호원 한성미는 그가 적적해할세라 아름다운 웃음과 진심어린 격려를 안겨주고 마치 친할머니를 돌봐주듯 생활공간의 안정을 보장하고있다.

의료일군들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기껏하여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던 그의 생이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연장되고있다.

자기 어머니에게 바치는 의사, 간호원들의 정성에 감동된 홍영순동포의 딸 류홍선동포는 지난 3월 중국으로 떠나면서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를 남기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도 감사편지를 보내여왔다.

편지에서 홍영순부회장의 건강회복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있는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에게 고마움의 인사와 함께 해외동포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진정 사랑의 집이라 불리우고있는 평양친선병원은 해외동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어머니조국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져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홍영순동포

한해를 더듬어보며

해외동포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던것이 어제일같은데 어느덧 주체110(2021)년의 마지막달이 왔습니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숨결을 같이하며 온 한해 애국애족활동을 힘있게 벌려온 해외동포여러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올해는 조국청사에 있어 특기할 사변들로 가득찬 잊지 못할 해였습니다.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정초 조선중앙TV와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관한 보도를 시청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동포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보폭을 맞추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명절과 기념일을 맞으며 재일, 재중, 재로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은 경축행사들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녀성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가족을 비롯한 동포조직들과 재중동포들은 태양절과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비롯한 국가적명절을 맞으며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 경축좌담회에서 최수봉제1부의장, 차상보부의장 겸 연변지구협회 회장, 리순남부의장, 김영녀부의장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한성옥회장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동포들은 경축좌담회와 영화감상회, 경축모임과 사진전시회를 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업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이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되고있다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일군들과 성원들을 비롯한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조국의 통신,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국인민들과 함께 애국사업에 헌신하여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일심단결, 이민위천, 자력갱생의 리념을 높이 들고 온 한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습니다.

지난 3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건설자들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에 고무된 조국인민은 당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낮과 밤이 따로없이 전투를 벌려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민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결정관철에 총매진하여 5개년계획의 첫해 경제과업수행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받아안고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습니다.

올해의 취재수첩을 한페지한페지 번질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만 믿고 따르면 언제나 승리와 행복이 온다는 진리를 실생활체험으로 새겨안은 조국인민들의 모습이 안겨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애국의 한길을 걷고있는 해외동포들의 모습도 정겹게 어려옵니다.

그럼 이해의 마지막날까지 동포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동포생활과 애국애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함경남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3)

-고려장성-

고려장성을 천리장성이라고 한다.

압록강하구로부터 평안북도의 북쪽과 자강도의 희천지방, 평안남도의 북단을 가로질러 함경남도의 바다가에 이르는 천여리에 쌓은 장성이다.

이 성은 고려시기 우리 선조들이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쌓았다.

현재 평안북도의 신의주시, 의주군, 창성군, 동창군, 운산군, 자강도의 희천시, 동신군, 평안남도의 녕원군, 함경남도의 요덕군, 금야군, 정평군 등에 그 성벽이 남아있다.

성벽의 대부분은 돌로 쌓았고 곳에 따라 흙으로 쌓은데도 있다. 산경사면에서는 거의다 외면축조방법을 적용하였다. 험한 절벽이 있는 곳에는 그자체를 성벽으로 삼았으며 평지에서는 량면축조방법으로 쌓았다.

성벽의 높이는 대체로 4~7m이며 성벽우의 너비는 2~5m이다. 성벽우에는 성가퀴를 쌓고 활을 쏘는 구멍을 냈다.

천리장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곳들에는 독립성을 쌓아 군사적거점으로 삼았으며 의주군과 정평군 등의 큰 길목에는 관(변방의 요소에 있는 관문)을 설치하고 그밖의 작은 길목들에는 수(경비초소)를 두었다. 천리장성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 * *



자강도의 일부 지명들 (1)

자강도는 우리 나라에서 량강도 다음가는 내륙고산지대로서 자연환경이 다양하고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하다.

이 지역은 본래 고조선의 땅이였고 그후에는 고구려에 속해있었다.

발해-후기신라시기에는 발해의 서경압록부에 속한 지역이였다.

해방후 자강도는 평안북도에 속해있었다.

주체38(1949)년 1월 당시의 평안북도 강계, 자성, 후창, 위원, 초산, 희천군과 함경남도 장진군의 일부를 합쳐 새로 도를 내오면서 자성군의 《자》자와 강계군의 《강》자를 따서 이 지역을 자강도라고 불렀다.

자강도의 소재지는 강계시이다.

이 지역이 강계라는 지명으로 불리운것은 1369년에 강계만호부를 둘 때부터이다.

장자강과 북천, 남천 등 여러 강들의 경계에 자리잡고있다 하여 《강계》라고 하였다.

장자산과 인풍루는 예로부터 강계의 명승으로 일러왔다.

장자산은 강계시의 장자동에 있는 산으로서 이전에는 큰솔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충성동에 있는 인풍루는 장자강과 그 지류인 북천이 합류하는 곳의 높은 벼랑에 자리잡고있는 루정이다.

연분홍색진달래가 만발한 봄날의 인풍루와 장자강의 달빛을 굽어보는 달밤의 인풍루는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다.

인풍루는 원래 강계성(읍성)부속 루정으로서 1472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당시에는 강계성과 함께 북방방위를 위한 중요한 요새로 리용되였다.

앞의 넓은 마당은 병사들이 무술을 련마하는 장소로도 리용되였다.

자강도 만포시의 만포라는 지명은 압록강을 오르내리는 배들로 가득찬 포구라는 뜻에서 지어진것이다.

우리 나라의 이름난 학자인 정약용은 1814년에 자기의 저서 《대동수경》에서 190년경에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국상으로 삼은 을파소가 살던 《이른바 좌물촌 역시 만포보의 근처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246년에 고구려의 동천왕이 싸움에서 공을 세운 류옥구에게 준 《압록원은 지금의 만포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시기에 만포지역이 좌물촌, 압록원으로 불리웠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봉건왕조초엽에 와서 강계부에 속하여있으면서 만포라고 불리웠다.

만포시의 세검동에는 1636년에 첨사 박남여를 비롯한 용감한 군사들이 적들을 무찌르고 피묻은 칼을 압록강물에 씻었다는 세검정이 있다.

세검정은 관서8경의 하나로서 우리 인민이 자랑하는 문화유적이다.

전해지는데 의하면 1636년 수만에 달하는 침략자들이 만포진의 대안으로 밀려들어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을 때 만포진을 지키고있던 첨사 박남여는 일부 력량을 깊은 밤에 이동시켰다가 이른새벽이면 대오를 지어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적진에 진입시키군 하여 아군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질겁하여 적들이 서성거리고있을 때 총공격을 들이댐으로써 침략자들을 일격에 물리쳤다고 한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서학순

상식

아침식사를 하지 않으면 로화가 촉진된다

사람이 하루밤을 휴식하고나면 인체의 각종 기능활동이 아침부터 점차적으로 왕성해진다. 이때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리용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아침식사를 하여야 정력이 더 왕성해지고 사유에 민감해지며 사업의욕이 더 높아진다.

만일 오래동안 아침식사를 잘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으면 영양소가 심히 부족되여 유기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만성위장염과 빈혈 등의 병을 일으키며 로화를 촉진시킨다.

아침식사를 제때에 하고 여러가지 영양소를 잘 배합하여 하여야 한다. 아침식사에 남새나 과일류를 섞어 비타민과 광물질섭취량을 늘이는것이 좋다.

* * *

12월의 절기와 민속

12월의 절기들에는 대설과 동지가 있다.

대설은 한해치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절기라는 말로서 양력으로 7일이나 8일에 든다.

올해의 대설은 12월 7일이다.

예로부터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그해 겨울은 푸근할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겨울에 이르렀다는 의미에서 일러오는 동지는 22일이나 23일에 든다.

올해 동지는 12월 22일이다.

동지날에는 한해가운데서 해가 제일 늦게 뜨고 일찍 진다. 따라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길다.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은 거두어들인 낟알을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고 씨붙임한 밀보리밭에 거름을 내였으며 다음해농사에 쓸 농기구들도 손질해두었다.

이 절기들에 우리 인민들이 즐겨 해먹은 음식들로서는 팥죽, 랭면, 동치미, 수정과 등이였는데 그중에서도 이름난것은 동지날 쑤어먹는 팥죽이였다.

옛 기록에 의하면 동지날은 《작은 설날》이라고 하여 붉은 팥죽을 쑤어먹었는데 찰수수가루나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알심을 만들어 죽에 넣고 꿀을 타서 철음식으로 삼았다고 전해지고있다.

동지날에 팥죽을 쑤어 이웃들과 나누어먹으면서 서로의 화목을 도모해온것은 오랜 세월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져내려온 하나의 풍습이였다.

동지무렵에 날씨가 따뜻하면 이듬해에는 농사가 잘될 징조라는 의미가 담겨진 속담과 얼핏 보기에는 사람이 변변치 않을것같으나 하는 일이 록록치 않음을 비겨 《배꼽은 작아도 동지팥죽은 잘 먹는다.》는 속담도 전해져오고있다.

이 시기 진행된 민속놀이들은 어린이들의 제기차기, 공차기놀이와 장치기 등을 들수 있다.

* * *





력사인물

생물학자 박세당

박세당(1629년－1703년)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생물학자이다.

그의 호는 서계이다.

1661년에 문과에 통과하고 관직에 올라 높은 벼슬을 한 그는 평시에 농사는 민생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의 살림을 추켜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우기 그는 임진조국전쟁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침략자들과의 싸움과정에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정력을 바치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농사리론을 창조하기 위하여 이미 서술된 농사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리고 농사계절이면 늘 논과 밭에서 살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적어두군하였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를 해나갔다.

그는 자기의 연구성과를 저서 《색경》에 수록하였다.

이 책에는 농산업, 과수업, 잠업, 축산업 등과 관련한 자료들이 상세히 기록되여있다.

그는 이밖에 《사변록》, 《통설》, 《서계집》을 비롯하여 농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책들을 내놓았다.

그가 쓴 책들은 농사에 필요한 방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집대성하고있어 당시 나라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 *

상식

민족기악 《신아우》

《신아우》는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민간기악단과 개별적인 연주가들속에서 널리 연주된 민간기악곡이다.

서로 다른 《신아우》가 알려지고있는데 유명한것은 함경도지방의 《신아우》이다.

함경도지방에서는 퉁소로 연주된 악곡이라고 하여 《퉁소신아우》라고도 하였다.

함경도지방의 《신아우》는 옛날부터 민간의 이름난 퉁소명수들에 의하여 적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군가로 많이 불리워졌으며 인민들의 민속적인 명절놀이때에 성황리에 연주되였다. 함경도지방의 《신아우》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항상 슬기와 용맹을 떨친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사상감정과 강의한 전투적기백이 잘 반영되여있다.

높고 긴 호소적인 서두음에 뒤이어 빠르고 경쾌한 악구들이 힘차게 전개되는 《신아우》는 민요6음조식에 기초하고있으며 휘모리장단을 타고 맹렬하고 기백있게 전투적으로 흐르는것이 특징이다.

음악은 리듬이 선명하고 절도가 있으며 마치 적진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달려가는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준다.

* * *

단숨에 써내려간 《칠언백운시》

명필로 이름이 높던 한석봉이 평양성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평양에 와서 비문을 써주고있던 어느날 밤이였다. 감영에서 한 관리가 찾아와서 그를 깨웠다.

《아니, 이 밤중에 감영에서 무엇때문에 부른다우?》

《속히 의논할 일이 있다면서 접반사가 부릅니다.》

《접반사가? 그럼 리정구대신이 말이요?》

한석봉은 자리를 걷고 일어나 감영으로 향했다.

리정구가 접반사로 외국에서 오는 사신을 맞아 의주에 나갔다가 그와 함께 오늘 평양에 왔다는 말은 이미 들었던것이다.

한석봉이 감영에 이르니 밤은 깊었으나 접반사 리정구와 당대 문장가였던 차천로를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모여앉아있었다. 그들은 기다리던 한석봉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반겨맞았다.

《이거 밤늦게 불러서 안됐소.》

리정구는 영문을 몰라하는 한석봉에게 먼저 커다란 두루마리에 씌여진 글을 펴보이였다.

얼핏 보니 《평양은 좋을시고》라는 제목의 오언백운시였다.

《이 시는 누구의것이요?》

한석봉이 묻자 리정구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이번 사신이 문장에 능하고 글씨도 잘 쓰기로 이름났다기에 대궐에서는 리정구와 차천로 등 문장에 밝은 사람을 보내여 사신을 맞아오게 하였다.

그들은 의주에서 평양까지 오는 동안 서로 글을 짓고 화답하는것으로 즐기였다.

사신일행이 평양에 도착하자 평양감사는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술과 노래로 즐기도록 하였는데 연회를 마치게 될무렵에 사신이 천여자나 되는 장시를 내놓으면서 래일중으로 화답시를 써달라고 했다는것이였다.

래일 사신일행중에서 지금까지의 정형을 자기 나라에 보고할 일로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평양의 선물로 화답시를 주어보내려고 한다는것이였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제기였다. 시는 차천로가 이제부터 자지 않고 날이 밝기 전까지 짓는다치고 그것을 다시 명필로 써서 주자면 종일 걸리여도 안될 일이였다. 게다가 사신은 자기 나라에 선물로 보내는 화답시니 보통종이가 아니라 20여첩의 병풍에 써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렇게 해주자면 빨라도 2~3일은 걸려야 하였다.

이 부탁은 사신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글재주와 글씨를 떠보자는 속심에서 한것이지만 아침에 도착하여 저녁의 연회때까지 평양에 대한 큰 시폭을 내놓는 그의 재주에 대답을 못하는것은 나라의 수치일뿐 아니라 인사로도 되지 않는 일이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난 한석봉이 좌중을 둘러보며 《이에 화답할만한 시가 인차 되겠는지 하는것이 문제이지 그걸 쓰는거야 무슨 문제이겠소.》라고 하였다.

《래일 아침까지 시를 완성해주면 래일 정오전까지 베껴놓을수 있겠소?》

차천로가 이렇게 말하자 한석봉이 도리여 그에게 물었다.

《래일 아침까지 화답시를 완성할수 있겠소?》

《나는 사신의 시를 읽으면서 이에 화답할 시문을 다 찾았으니 이제 쓰면 되오.》

《그렇소? 그렇다면 기다렸다 다시 옮겨쓸게 있소? 직판 저에게 불러주시구려. 그럼 시간을 더 줄일수 있을게 아니겠소?》

《예?》

차천로는 놀랍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래일 정오까진 문제없이 완성될것같소.》

리정구는 기뻐하며 곧 글쓸 준비를 시켰다.

관리들은 떨쳐나서 옥판선지를 가져다 병풍 20폭에 맞추어 벽에 걸어놓았다.

붓을 들고나선 한석봉은 차천로더러 시를 읊으라고 하고 자기는 그가 읊는대로 받아써내려가기 시작하였다.

한석봉이 어찌나 빨리 써내려가는지 차천로가 시 한구를 엮어내리여 마지막글자가 그의 입에서 떨어지면 한석봉의 붓끝에서도 마지막글자가 씌여졌다.

이리하여 청산류수로 내리엮는 차천로의 입놀림과 함께 시작한 붓글은 그의 입이 다물어지는것과 동시에 끝났다.

차천로의 시는 사신의 시보다 마흔자가 더 많은 칠언백운시였다.

한다하는 명필도 옥판선지에 쓰는 글씨라면 하루가 걸려도 못다 쓸 칠언백운시를 한두식경도 되지 않아 써놓는 한석봉의 명필과 속필을 두고 리정구를 비롯한 접반사일행과 감영의 관리들은 그만 감탄하여 입을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더더욱 놀란것은 사신이였다. 이튿날 날이 밝기 바쁘게 리정구를 비롯한 접반사일행이 20폭의 화답시병풍을 가지고오자 사신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시내용이 분명 화답시인데다 시구들도 자기것보다 월등한 명구들이고 그 필체 또한 자기것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신비경이였으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필체는 뉘 필체이시오?》

《우리 나라 한석봉의 글씨입니다.》

《그렇습니까? 한석봉의 글씨가 신묘하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과연 이렇게 신비로운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보다 나은 명필에 속필가는 아직 없습니다.》

* * *

스승을 놀래운 어린 서경덕

서경덕은 1489년 2월 개성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였으며 학구열이 남달리 높았다. 그는 무엇인가 모를것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어 해명하고야마는 기질을 지니고있었다.

그가 14살 되던 해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스승이 그에게 《상서》(책이름)를 배워주었는데 서경의 기삼백에 이르러서는 읽는 법만 가르치고 그 뜻을 해석해주지 않고 넘기려 하였다.

《저, 뜻을 왜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서경덕이 의아해하며 묻자 스승은 《이 장의 글뜻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무엇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올려다보며 따지고드는 서경덕앞에서 스승은 무슨 말로 대답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였다. 이 장의 글뜻이 어려워 스승도 아직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렇다고 어린 제자앞에 몰라서 대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할수가 없었다.

《이 장의 글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 읽지 않는것이 좋다.》

그러고는 다음 장의 글을 배워주었다.

집에 돌아온 서경덕은 스승의 대답이 리해되지 않아 속으로 되새겨보았다.

《이 세상에서 알 사람이 없는 글을 어찌 책에 올렸을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런 의혹이 들면 들수록 그는 기삼백을 그대로 덮어둘수가 없었다.

그는 기삼백을 읽고 또 읽었다. 과연 아무리 읽어도 뜻을 알아낼수 없었다.

그는 그만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세상사람들이 알수 없는 글을 책에 써넣고 전해올수 없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어 계속 읽고 또 읽기를 백번천번을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드디여 보름만에 그 뜻을 밝히고야말았다.

다음날 서경덕은 스승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해득한 뜻을 해석하면서 옳지 않은가고 물었다.

이때 스승은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된 자신의 기쁨과 함께 서경덕의 탐구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부끄러움도 잊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였다.

《옳구나, 바로 그런 뜻이였구나.》

그러고는 서경덕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렇게 한탄하였다.

《내가 학문의 높은 경지에 오를 때까지 더 배우지 못한것을 탄식했더니만 결코 더 배울수 없었던것이 아니라 너처럼 탐구할줄 몰랐던 탓이였구나.》

* * *

아이들의 제기차기놀이

제기차기는 남자아이들이 명절과 휴식일은 물론 여느때에도 학교와 마을들에서 하는 민속놀이입니다.

제기차기는 아이들이 계절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몸을 단련하고 집중력을 키우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한 재미동포일행이 제기차기를 하는 학생소년들과 만나게 되였습니다.

캘리포니어주에서 살고있다는 70고령의 한 재미동포는 10년만 젊었어도 소년들과 어울려 제기차기를 할수 있을것이라며 유년시절에는 동네적으로 손꼽히는 제기차기명수였다고 자랑하는것이였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한 동포녀성이 《아직도 마음만은 젊었다.》고 웃으면서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동포는 《이거야 어디 발목이 근질거려 참을수가 있나? 그럼 똑똑히 보시우.》라며 아이들과 어울려 제기를 차는것이였습니다.

역시 수십년세월이 흘렀어도 그의 어릴적 제기차기재간은 아직도 다분히 남아있었습니다.

몇개의 닭털에 알락달락 여러가지 색갈을 들여 만든 고운 제기는 한 아이에게서 뒤여올라 그 동포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받은 동포는 자기가 발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몇번 차더니 다시 그 아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로인의 뜻밖의 출현으로 하여 아이들의 제기차기는 한결 더 흥그러워졌습니다.

떠나는 로인의 손에 한 아이가 제기를 하나 쥐여주며 《할아버지, 다음번에 또 오시면 저와 꼭 내기를 해보자요!》라고 하였습니다.

동포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러자. 우리 꼭 내기를 하자. 나도 이 제기를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겠다.》라며 환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제기차기는 해외동포로인의 가슴속에도 이름할수 없는 향수감과 어릴적추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럼 새세대 동포여러분을 위하여 제기차기는 어떤 민속놀이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기차기는 조선의 전통적인 민속놀이의 하나로서 삼국시기(B.C. 3세기중엽-A.D. 7세기중엽)부터 널리 진행되였습니다.

제기는 동그란 연판쪼박, 단추같은것에 종이나 새의 깃털, 짐승털로 술을 붙여 만드는데 이것을 땅에 떨구지 않고 오래동안 발로 차는 놀이가 제기차기입니다.

제기차기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하였습니다.

제기차기는 제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련속적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력사적기간 제기차기는 제기형태와 차는 방법이 달라지긴 하였으나 대체로 한발로 련속 차거나 두발로 번갈아차면서 제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차기와 여러가지 재주부리기 등을 겨루는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기차기는 한사람씩 개별경쟁을 할수도 있고 여럿이 편을 갈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기회수를 미리 정하고 그 수자를 먼저 차기내기도 하며 일정한 시간내에 누가 많이 차는가를 겨루기도 합니다.

한사람씩 차는 경우 순번을 정하고 순서에 따라 차는데 처음은 한발로 차다가 발을 바꾸어찰수도 있고 두발로 엇바꾸어 련속 찰수도 있습니다.

한사람이 차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차는 수를 셉니다.

처음에는 보통 많이 차기를 하고 다음에는 복잡한 방법으로 재주를 부리는데 발의 안쪽과 바깥쪽, 발등과 발뒤축, 무릎으로도 차며 제기를 머리, 어깨, 잔등, 허리 등에 올려놓았다가 떨어지는것을 받아차기도 하고 앞에서 차올리고는 돌아서서 받기도 하며 발뒤축으로 차고 앞으로 받기도 합니다.

또한 제기를 차면서 일정한 거리를 돌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사람씩 차기의 승부가 결정되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2~3m앞에서 제기를 던져주면 그것을 발로 받아찹니다.

이때 차던지는 제기를 손으로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면 받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나 던져주는 제기를 제대로 받아차지 못하면 놀이는 끝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차례의 놀이가 끝나면 다시 놀이를 시작합니다.



제기차기는 어린이들에게 집중력과 물체의 자유락하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키워주며 온몸놀림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으로서 주로 한발로 온몸의 중심을 유지하고 다른 발로 제기차기를 해야 하는것만큼 근육단련과 체력단련에 매우 좋습니다.

제기차기는 주체107(2018)년 5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유 모 아

마스크를 끼는 리유

엄마를 따라 병원에 온 아들이 엄마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하였다.

《엄마, 의사들은 수술할 때 왜 마스크를 끼나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는것이였다.

《그건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환자가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거겠지.》

* * *





명승 – 철산장송

철산장송은 평안북도 철산군에 자리잡고있다.
철산장송은 조선서해기슭의 모래밭에 남서방향으로 펼쳐진 소나무단순림이다. 서해안일대에서 손꼽히는 방풍림이며 4 000여m의 길이에 100m의 너비로 펼쳐진 소나무림이다.

이곳에서 자라는 소나무의 특징은 나무줄기가 붉은 밤색이며 뿌리가 얕게 뻗는것이다.

이 소나무림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바람이 강한 철산반도의 바다가에 군락을 이루고있어 부침땅과 주민지대를 바다바람으로부터 잘 막아주고있다.

나이가 서로 다른 나무들이 비교적 소금기가 센 토양조건에서 자라고있어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을뿐 아니라 우리 나라 해안일대의 전형적인 바다가소나무방풍림으로서 보존가치가 크다.

방풍림에는 송이버섯이 많고 꿩, 메새를 비롯하여 10여종의 새들이 있다.

해마다 8월과 9월에는 수백마리의 백로, 왜가리들이 떼지어 날아와 황홀경을 펼쳐놓는다.

철산장송은 바다풍치와 잘 어울려진 아름다운 곳이다.

바다기슭에는 50여m의 너비로 백사장이 펼쳐졌는데 해당화가 많이 자라고있다.

본사기자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